

2002학년도

석사학위청구논문

Calvin의 교리 교육에 대한 현대
교회의 적용 가능성 연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실천신학전공

유 현 철

목 차

I.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과 범위 -----	5
3. 용어의 정의 -----	7
II. 교육적 관점에서의 칼빈의 사상 -----	9
1. 칼빈의 신학 사상 -----	9
1) 칼빈주의 5대 교리 -----	11
2) 예정과 성화 -----	17
2. 칼빈의 교육 사상 -----	23
1) 교육과 신학 -----	26
2) 교육 원리와 방법 -----	28
III. 칼빈의 교육 사상 (카테키즘교육)의 실천 -----	35
1. 칼빈의 교리 교육과 교육 목회 -----	35
1) 교리 교육의 이해와 사상 -----	35
2. 칼빈의 교회 교육의 실제 -----	41
1) 교리 문답 교육 -----	41
2) 어린이 교육 -----	48
3) 청소년 교육 -----	53
4) 성인 교육 -----	58
IV. 칼빈의 교리 교육과 역사적 카테키즘이 현대 교회에 주는 의미 와 적용 -----	65
1. 카테키즘 교육의 회복과 적용 -----	65
1)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	65
2) 칼빈의 교리 교육과 역사적인 카테키즘의 현대 교회 상에 서의 적용의 한계성 -----	68

2. 역사적 캐터키즘의 현대 목회적 적용 가능성 -----	71
1) 한국. 교회의 학습. 세례 준비 교육의 사용 -----	71
2) 역사적 캐터키즘의 새로운 시도 -----	72
3) 새로운 캐터키즘의 개발 -----	75
3. 칼빈의 교리 교육과 역사적인 캐터키즘의 현대 교회에 있어서 의 목회 실천적인 적용 -----	79
1) 신앙 교육적인 기능 -----	79
2) 예전적인 기능 -----	93
3) 교리 문답 설교로서의 기능 -----	93
4) 기도로서의 기능 -----	95
5) 목회 상담으로서의 기능 -----	99
6) 신앙고백서로서의 기능 -----	106
7) 초 신자들을 위한 신앙 교육적 기능 -----	107
V. 결론 -----	109
참고 문헌 -----	115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조지 바나의 책 중에 「주전자 안의 개구리」(A frog in the kettle)란 책이 있다. 한 대학 실험실에서 개구리의 신경 반응 실험을 했는데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상황의 변화를 느끼거나 반응하지도 못한 채 삶아 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구리의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어찌면 바로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의 이야기를 보는 듯 싶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세상 문화를 주도해 가는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으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별 의식 없이 세상의 상대주의 사상에 젖어 들고 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처럼 우리들은 절대 도덕, 절대 선, 절대 신, 절대 종교, 절대 심판 등의 기존의 절대 관념을 비웃고 상대화하는 세상에 숨쉬고 있다. 멀티미디어와 대중 문화가 퍼붓는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그 가치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모든 가치, 모든 사상, 모든 원리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무시하는 세속화의 염병은 이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의식 속까지 깊이 자리잡고 있다¹⁾.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혼란 속에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세속화와 물질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우리의

1) 양승헌, “교회 교육의 갱신 없이는 21세기는 없다.”, 「목회와 신학」(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0년 1월호), 100.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많은 마스크를 통해 오늘날 학교 교실이, 학교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실이 이미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왜 듣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 분반 공부 없어요!”가 더 기쁜 소식이 되어 가고 있다. 생명의 진리가 담긴 성경 공부를 재미없고, 지루하고, 삶과 멀리 떨어져 있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이 큰짐이 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할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교육의 결과는 어떠한가? 대가 끊기는 가문처럼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대학 청년 부로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가?

한 교회 고등부 출신 아이들 가운데 대학 청년 부로 이어지는 비율이 30퍼센트 정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면, 아이들은 더 이상 주일학교를 매력적이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 지상주의로 말미암아 주일학교의 장년 교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교회의 모든 관심은 한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교육되어지는 것보다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장년의 성도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교회의 건물이 있는가? 재정은 얼마나 풍요한가? 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또한 바쁜 산업화의 생활 속에서 장년들, 특히 남성들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전무한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 고

등부와 청년 부를 지나 결혼을 하게되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기회 없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참석했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의 교육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선교 초기에는 교회로 밀려오는 성년 불신자와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목사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다. 진지하고 열성적인 장년들을 위한 성경 학습이 여러 날에 걸친 사경 회나 성경 구락부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때 소위 ‘은혜’를 받은 장년들이 그들이 먼저 배웠던 것을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였다.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한 일정한 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의 회복이며 성화인 것이다. 장년 교육의 회복은 곧 주일 학교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²⁾.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장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또한 어떻게 가르쳐야하는가?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2:2).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게 들은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였고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

2) Ibid., 104-5.

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8)라고 말한다. 요한 은 요한 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오늘 가르쳐야 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 신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기독교 이 천년 역사 동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신학적 작업들이 있어왔다. 수많은 이단과 그릇된 사상과의 싸움, 카톨릭과의 종교 개혁. 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확립하였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박형룡 박사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말하는 자리에서 한국 장로 교회의 신학이란 “구주 대륙의 칼빈 개혁주의에 영미의 청교도 사상을 가미하여 웨스터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신학”이라 말하고, 또한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이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영미 장로교회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에 전래되고 성장한 과정”이라고 말했다³⁾.

이와 같이 칼빈의 신학과 사상은 오늘 한국 장로교회가 배우고 지키는 근본인 것이다. 아울러 칼빈이 당시에 실천하고 적용하였던 교육의 방법들 역시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적용하고 배워야 할 부분인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의 가장 큰 초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칼빈의 신학과 교육적 사상은

3)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 선집XI, 신학 논문」 하권, 389. 재인용: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23.

무엇이며 그러한 칼빈의 신학과 교육적 사상이 당시에 어떻게 실천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이다. 특별히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 속에 나타난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통해 당시의 칼빈의 교리 교육과 교육 목회를 연구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카테키즘 교육을 통해 적용되고 실천되었던 칼빈의 사상과 교육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칼빈의 모든 신학적 교육적 사상을 담고 있었던 교리 문답과 교리 교육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며 가르쳐야 하는가? 를 연구하고자 한다.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을 쓴 하워드 헨드릭스는 이러한 말을 하였다. “오늘의 성장이 없다면 내일의 가르침도 없다.” 아울러 가르치는 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는 첫째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과 둘째로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⁴⁾.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칼빈의 신학과 교육적 사상들을 교리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오늘의 우리 세대와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리킬 수 있는가? 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위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칼빈의 신학과 사상. 그리고 역사적 교리 교육에 대해서는 역사적. 문헌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며 현대 교회에 있어서의 교리 교육의 적용에

4) Howard G. Hendricks,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 (서울: 디모데, 1994), 8.

있어서는 문헌적 연구와 함께 실제적 제작 작업을 통한 구체적 적용을 통해 진행하려 한다.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먼저 I 장은 서론 부분으로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II 장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칼빈의 신학 사상을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칼빈의 신학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5대 교리와 예정과 성화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칼빈의 교육 사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칼빈의 교육사상에 있어서의 교육과 신학과의 관계, 그리고 칼빈의 교육 원리와 방법 안에서의 교육 환경과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칼빈의 신학과 교육 사상이 당시에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칼빈은 자신의 신학과 사상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칼빈의 신학과 교육적 사상을 담고 있는 카테키즘 교육과 교육 목회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칼빈의 교리 교육과 중요성, 칼빈의 교리 문답과 설교, 칼빈의 교육적 실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교리 교육이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들에게 어떻게 실천되었는가? 를 살펴보며 나아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의 카테키즘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칼빈의 교리 교육과 역사적 카테키즘이 현대 교회에 주는 의미와 적용의 부분으로서 이러한 칼빈의 교리 문답 교육과 역사적 카테키즘이 오늘날 어떻게 회복되고 적용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칼빈의 교리 교육 및 역사적 카테키즘 교육의 현대 목회 상에서의 적용의 한계성, 그리고 적용

가능성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교리 교육과 카테키즘 교육이 현대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목회 실천적인 적용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단순히 신앙의 고백으로서만 머물러 있던 캐터키즘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 신앙 교육적 기능, 예전적인 기능, 설교서, 기도서, 목회 상담서, 신앙 고백서의 기능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서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칼빈의 신학과 사상 그리고 교리 교육과 현대 교회에 있어서의 적용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한국 교회가 칼빈의 교리 교육을 어떻게 새롭게 적용 할 것인가? 와 칼빈의 교육 목회에 기초한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카테키즘(catechism)은 독일어의 ‘카테키무스(katechismus)’에서 온 말로서 독일어의 신앙교육서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캐터키즘(Cateshism)이라 부른다. 우리말에는 일찍이 요리 문답서, 신도개요서, 교리 문답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이다. 기독교 진리의 가르침 즉 기독교 구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⁵⁾. 이 말은 초대 교회에서 세례 받을 준비를 하는 세례 지원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가르침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또한 종교 개혁 시대에는 가르침에 관한 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5) 정일웅, 「한국 교회와 실천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2), 311.

카테키즘을 다시금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보면 카테키즘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입교 전에 있는 청소년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세례에 앞서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지도하는 교육 행위이기도 하다.

II. 교육적 관점에서의 칼빈의 사상

1. 칼빈의 신학 사상

칼빈의 신학 사상을 보통 한마디로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칼빈주의를 단순히 Calvin의 사상체계를 추종하는 신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칼빈주의의 본연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 칼빈주의를 단순히 하나의 신학사상으로만 이해하는 것 역시 칼빈주의의 일면만을 살핀 추론의 결과이다. 그리고 칼빈주의의 발단을 Calvin의 시대로 추정하는 것도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주의란 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특별히 취급한 하나의 포괄적인 신학 체계인데, 이것을 칼빈이 종합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라 한마디로 칼빈주의라 부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칼빈이 처음으로 종합적인 신학체계를 세웠고, 또 그것을 성경 적으로 알기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강조 점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에 있으리로다 아멘”(롬11:36)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칼빈주의의 근본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취급하고있음을 잘 알 수 있다.⁶⁾ 그러므로 참된 칼빈주의자는 언제나 그 사상의 중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며,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을 기도하면서 계속하는 자라 하겠다.

6)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18.

칼빈의 중심적 신학 사상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기초는 신적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영감 된 정확 무오 한 성경에 그 권위와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칼빈 주의자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그들은 멈춘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며,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그들도 침묵한다. 그러므로 칼빈 주의자는 성경을 강해하는 강해 자이며 주석 가일 뿐이다. 그래서 칼빈 주의자들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하이다”(렘10:23)라는 성경 말씀을 현실 생활에서 확증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만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다(잠 3:5-6,16:9, 사45:13, 빌2:13, 살후3:5등 참조).⁷⁾

칼빈주의는 성경에서 중심 교리를 찾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 효과 있는 선택과 부르심, 구원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권 등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또한 칼빈의 신학 사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도 포함되어있다. 예정론은 칼빈주의의 중심 교리는 아니다. 예정은 언제나 사람과 상관되고 사람에게 될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칼빈주의자에게 첫째 가는 관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상이다.

즉 칼빈의 신학 사상 전 영역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은 하나님 중심 적인 사상이다. 이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이 가졌던 가장 중심 된 사상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기초 위에 칼빈의 5대 교리가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제일 먼저, 그리고 중심에다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역설하고 있

7) Ibid., 21.

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에만 아니고 불신 세계 각 분야 즉 자연계, 정치계, 문화계, 교육계 전반의 문화에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1) 칼빈주의 5대 교리

우리가 칼빈주의를 말할 때는 아무래도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형성 된 것은 17세기 초 화란에서 발생한 신학적인 논쟁에서 부터이다. 당시 화란 신학교 교수였던 알미니우스(James Arminius)가 죽은 지 1년이 된 1610년에 그의 제자들이,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것에 기초하여 5개 조항을 만들어 칼빈주의 기독교 국가였던 화란 정부에 항의하여 제출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항의문에서 벨직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 of Ferth)과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Heidelberg Cathetism)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요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개혁적 신앙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능력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정부는 1618년 11월 13일 화란 남부 지방 도시인 돌트에서 총회로 84명의 총대와 기타 행정 원과 각 국 대표를 합쳐 129명이 모여 알미니안주의자 들의 견해를 성경 적으로 검토하게되었다. 이 회의는 다음해 5월9일까지 약 7개월 간 계속하여 154차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제시한 교리가 성경에 맞지 않음을 지

적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성경 말씀에 입각한 참된 교리라는 결론을 얻어 정식으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Tulip(5대 교리의 영문 첫 글자 표기)이 탄생하게 되었다.⁸⁾

가) 인간의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상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비정상적이고 최악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훼손되었음을 가르친다. 이 부패는 인간의 육체적, 영적 모든 부분에 확대되어 있음을 말하며 죄가 사람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사람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한다. 인간은 무능력해졌고 그 결과 아무런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부패 혹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무능력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무엇보다 먼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역 곧 성령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위한 한치의 걸음도 옮겨 놓을 수 없고 그러한 복음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⁹⁾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깨닫는 것도 성령 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패는 내포적(內包的)이라기 보다는 외연적(外延的)이다. 사람은 가능한 모든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최악의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며 어느 정도의 상대적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8) Ibid., 30.

9)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78), 19.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은 다 죄악 된 것뿐이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단 한가지도 행하지 않는다.¹⁰⁾

나)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인간은 누구나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죄악 되고 영원히 버림받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죄악 되고 사악하며 부패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택하시다.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택한 것이다. 이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사랑에 의한 것이지 결코 선택된 자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성품이나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닌 것이다.¹¹⁾ 그러므로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선택의 교리는 사람의 부패와 죄로 파산되었던 사실만 아니고 삼위간의 영원한 언약과 관계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택은 성부 하나님이 일정한 수의 죄인들을 죄악 된 세상에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 그의 백성이 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성자는 성부께서 자기에게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구원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실 뜻에 동의하신 것이다. 이 언약의 시행에 있어서 성령이 하는 일은 성자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보장하실 구원을 저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성경 적인 이해는 성부의 선택 행위가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성자의 구속 사업과 관련되어야만 하고, 택함을 하시는 성령의 중생 사역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다(요15:16, 행13:48, 롬

10) 에드윈 h. 팔마, 박일민 역, 「칼빈주의 5대교리」(서울: 성광문화사, 1982), 19.

11)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20.

8:29-33, 엡1:4-6, 딤후1:9, 살후2:13-14등).¹²⁾

다) 제한 속죄 (Limeted Atonement)

제한 속죄는 다른 말로 특수 구속이라고도 한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선택함을 받은 자만을 구원하고 또는 구원받기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바 된 자들을 위한 것이지, 버린 자와는 결코 무관하다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이다.¹³⁾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반면 칼빈주의자는 “그리스도는 믿는 자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해 왔다. 즉 알미니안 주의자는 보편 속죄를 가르쳤고 칼빈주의자는 제한 속죄를 가르친 것이다.¹⁴⁾

칼빈주의자는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속죄가 그 구원하는 능력에서 한정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 능력에서 제한이 없고,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구원하시며, 그 속죄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칼빈주의자는 그리스도의 무제한적인 속죄가 그 범위에 있어 한정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는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에게 대한 죄책을 제거하기로 의도하셨으며 또 실제로 그리하셨다고 믿는다. 무한한 가치의 속죄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 되어있다. 그 속죄는 한정이 없는 속죄이다.¹⁵⁾

12)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32.

13)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20-21.

14) 에드윈 h. 팔머, 「칼빈주의 5대교리」, 67.

15) Ibid., 70.

라)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란 다른 말로는 효과적 소명(Effectual Calling)이라고도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려고 하신 바를 행하고자 마신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오해하면 ‘유효적’, ‘효과적’, ‘정복할 수 없는’, 또는 ‘확실한’과 같은 말들도 오해하게 된다. 불가항력적이란 은혜란 용어가 의미하고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사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역사케 하시면 그들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죄악에서 선한 사람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뿐이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죄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성령은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시는 것이다. (롬8:14,30, 고전2:10-14, 6:11, 12:3, 엡2:1-10,4:4, 딤후3:5, 골3:26-27 등).¹⁶⁾

알미니안 주의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배척한 이유가 인간의 결정에 있지만, 칼빈주의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 알미니안 주의자의 경우에는 믿음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선물이요, 칼빈주의자의 경우에는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¹⁷⁾

16)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33.

17) 에드윈 h. 팔마, 「칼빈주의 5대 교리」, 103.

마)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 구원 (The Pre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중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저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비록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시험에 빠져 실패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보호는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이러한 죄가 저들의 구원을 영원히 상실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궁극적인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사43:1-3, 54:10, 렘32:40, 요 5:24, 6:35-40, 10:27-30, 롬8:1, 29-30, 35-39등).¹⁸⁾

하나님은 어떤 자를 전적 타락에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면 그들의 구원과 성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새 생명과 의와 참된 지식을 보호하실 것을 작정하신다는 것이다.¹⁹⁾

성도의 궁극적 구원과 보호를 묘사하려면 다른 용어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은 성도의 견인이 사실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성도의 영원한 안전을 의미한다.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구주

18)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34.

19)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22.

로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품안에서 안전을 누린다.

2) 예정과 성화

칼빈의 신학 사상의 전 영역에 걸쳐 배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다. 이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을 아는 자의 신학적 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최상의 종교 행위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다²⁰⁾. 본 장에서는 칼빈의 신학의 핵심 내용의 하나인 예정과 성화(구원의 서정)를 중심으로 그의 신학사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의 신학사상을 기초로 한 교육 사상에 근거하여 칼빈의 교육적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예정과 성화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가) 예정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²¹⁾ 혹자(멸망에 처한 사람들, 혹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도)는 하나님의 이 예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라는 속성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²²⁾는

20) Louis Bouyer, *The Spirit and Form of Protestantism* (Westminster, Md: The Newman Press, 1956), 59-60.

2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 3권 21장 1절,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499.

22) Ibid., p. 500.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증명해 줄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푸셔야 할 의무가 결코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한 부르심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롬9:16). 그것은 인간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비롯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요6:44,65).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신다.(요17:6) 이러한 부르심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관적 행위를 인정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주관적인 의지로 의롭게 될 자를 영원 전에 결정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과 그 무상의 은총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조금도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택의 교리는 그 반대 부분, 곧 유기(遺棄)의 신적 행위에 비추어 볼 때에만,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유기는 일정한 개인에게 있어서 영원 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역시 그들 행위에 좌우된 것이 아니었다²³⁾.

칼빈은 예정교리를 논할 때, 그 몹서리나고 불길한 면보다는 위안을 주며 격려를 주는 면을 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는 한 피택자의 수에서 어느 누구를 제외한다든가, 혹은 그가 이미 버림받은 것처럼 그를 실망시키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했다.²⁴⁾

23) 신복윤, 「칼빈의 신학 사상」, (서울: 성광 문화사, 1993), 193.

아울러 칼빈은 이중적 예정을 가르쳤다. 즉 어떤 이는 구원으로, 어떤 이는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중적 예정에 관한 칼빈의 교리는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에 대한 그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즉 전자는 후자의 적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각 사람의 운명을 생명이나 죽음으로 결정하는 영원한 예정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택된 자의 구원을 그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러한 섭리는 선택되지 못한 자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칼빈은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것과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²⁵⁾.

우리는 또한 칼빈이 인간의 계발(啓發)과 시생과 의인(義認)에 관해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으며 선택되지 아니한 자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듣는다 할지라도 무관심하고 암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강조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러므로 지고(至高)하신 주께서는 자가 거부한 자들에게 그의 빛을 주지 않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둠으로써 그의 예정의 완성을 기하신다”는 것이다²⁶⁾.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과 내용은 그들 자신에게서 발견된다.” 칼빈은 하나님 자신이 선한 자들의 행위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악

24) Ibid., 194.

25) J. L. Neve, 서남동 역, 「기독교 교리사」(서울: 기독교 서회, 1982), 428.

26) Ibid., 429.

한 자들의 행위 가운데서도 내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입장에서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 악을 이용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을 분부하시지는 않는다.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정에 따라서 타락하지만, 그러나 한편 그는 자기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타락하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이중적 예정의 교리를 가르쳤다. 왜냐 하면 그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성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와 같이 창세 전에 이루어진 예정은 삼위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은혜의 섭리이다. 더불어 예정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경외 심을 갖게 하고 피조물 된 인생의 참된 도리를 깨닫게 하는 최고의 이정표이다. 그러므로 택자는 우리의 가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음으로, 평생에 걸쳐 우리의 존재의 목적되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광을 돌려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 대상을 신자 즉 택자로 하고, 그 근본적인 목적을 그 택자의 성화로 삼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 예정론은 그 출발이자 첫걸음인 것이다.

나) 성화 -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예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칼빈은 이러한 예정을 근거로 성화를 말하고 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1:6)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성화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선택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원인이 하나님이므로, 예

정과 선택의 결과인 성화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신 거룩함은 하늘에서 이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²⁷⁾

칼빈은 예정과 성화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발전적인 성화의 생활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소유함으로 즉시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완전해졌지만, 한편 우리 스스로의 입장에서 볼 때 전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²⁸⁾

성경의 목적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신칭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화”까지 주시는 구원임을 밝히고 있다.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칭의 뿐 아니라 성화까지 말한다(딤후 3:16-17)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거룩하게 된다는 일은 주님께 성별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주님께 바친바 되어 그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진다. 하나는 참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며,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일이다.²⁹⁾

이러한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욕을 날마다 제어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화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케 하시는 죄사함 인것이다. 진실로 우리를 의로다 하심은 성화 교리의 기초가 된다. 성화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첨

27) 김재우, 「칼빈의 성화론」, 합동신학 대학원대학교, 2000, 22.

28) 신복윤, 「칼빈의 신학 사상」, 192.

29)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8), 259.

부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다.³⁰⁾

칼빈에 있어서 성화는 계속적인 회개이며 그 내용은 육과 옛사람을 죽이며,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3.3.5). 칼빈은 회개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차원에서 중생으로 보고, 또한 성화를 일생 동안 회개를 실천하는 것으로 말한다(3.3.5;3.3.8-9). 성화란 결국 죄악으로 가득찬 우리의 자연적 본성이 얼마나 제어되고 소멸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사실상 회개의 내용과 일치한다. 칼빈은 회개를 “우리 삶의 진지한 하나님께로의 전환”,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기는 전환”, “우리의 육과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살리심을 얻는 것”으로 정의한다(강요 3.3.5). 여기서 영의 소생 곧 성령의 살리심이란 성령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즉 중생을 시작으로 해서 일생동안 계속되는 성화를 포함한다.³¹⁾

아울러 칼빈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성례전적 교제로 보았다. 성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제도로써, 성도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엡6:5)을 이어주는 중요한 예식이다. 이때 말씀과 기도는 성례를 거룩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례는 말씀과 기도로 신자의 약한 신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방편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참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칼빈의 성화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목적을 추구했던 신학자의 삶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작정에 속하는 예정과 그의 선택을 기초로 한다. 즉 성화는 예정에 속한다.

30) Ibid., 260.

31) Ibid., 261.

칼빈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울러 이 성화는 택함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원의 과정이다(빌1:6) 그러므로 예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듯이, 예정의 한 과정인 성화도 역시 삼위 하나님만의 사역이며, 따라서 하나님만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엡14:6)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이다. 또한 성화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사(마6:9),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시는 최고의 제사(삼상 15:22, 롬12:1)로서, 기독교교육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다.

2. 칼빈의 교육 사상

칼빈의 신학사상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업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칼빈의 교육사상 및 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우리의 주의를 끌만한 연구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칼빈의 교육관은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에의 신념 위에 형성된 세계관, 역사관 그리고 성경의 절대권위를 신봉하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

또한 칼빈의 교육적 사상의 특색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³²⁾

첫째로 칼빈의 교육이념은 우주적이며 삶의 전체성을 강조하고

32) 박동순, “칼빈과 교육”, 「칼빈과 개혁신학」 (광주: 광신대학교 출판부, 1999), 319.

있다.

둘째로 칼빈의 교육은 하나님의 피조물 또는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문화적 소명을 강조하고 있다.

세 째로 칼빈의 교육원리는 하나님 중심사상이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 시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이시다. 교육의 출발점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다. 칼빈주의적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사상은 알파와 오메가이다. 칼빈주의적 교육훈련의 목표는 어린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네 번째로 칼빈의 교육은 인간존재에 대한 진지한 해답을 찾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영으로 인간의 삶과 모든 일에 언제나 간섭하여 그를 의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인간의 본성과 생득적 기능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에게 맡기신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화창조와 영위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요, 이 계기가 바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인간 기업의 기능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은 교육의 기능근거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대전제 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칼빈은 그의 신학과 사상을 성경의 토대 위에서 전개하여 나간다.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기초도 성경이라고 보았다. 성경에 대한 그의 생각은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강해하였고, 각종 주석을 통하여 성경해석의 원리

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이 되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성경의 교육의 바른 원리를 제시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그의 초창기에 인문주의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인문주의에 한때 심취하였으나 여기에 결코 몰입하지 않고 이것을 초월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써 사용하였다.³³⁾

이와 같이 칼빈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인데,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수반한다. 다음의 성경 본문은 이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 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요17:3) 이 본문은, 신앙을 통한 영생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앞이니라”(요4:42)에서는 참된 믿음은 지식을 동반함을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믿는다는 것이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이 더욱 증진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칼빈은 첫 번째 교육의 대상을 하나님 자신으로 보았다. 즉 칼빈이 주창한 교육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육의 유일한 방편으로서 성경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점이 바로 칼빈의 교육 사상의 핵심이다.

33) Ibid., 320.

칼빈은 교회 교육을 모든 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그 외의 교육은 교회 교육의 연장선으로서 교회교육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칼빈은 가정 교육이나 학교교육 역시 장소적인 측면에서나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각기 독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교육의 연장이며 교회로부터 위탁 받은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다.³⁴⁾ 그리하여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 역시 교회 교육의 연장이며 교회 교육을 그 출발지와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1) 교육과 신학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 교육이나 학교 교육은 신학적 목적에 봉사하는 신학 교육이었다. 그 결과 신학은 교육 이론과 그 실천에 기초를 제공하며, 동시에 교육의 목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칼빈은 교육과 신학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신학을 이론적 근거로 한 교육 이념은 교회나 가정은 물론 사회 일반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신학과 교육은 필요 불가분의 관계이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교육되어지고 전해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교육은 인간 중심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 수행되어지는 교육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학과 교육은 서로 중요한 공통점을 가

34) 양금희, 「종교 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9), 144.

지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전제할 때 교육도 반드시 이 신학에다 기초를 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의 정의란 신학적 정의 속에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교육의 본질은 통찰할 수 있는 신학의 중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³⁵⁾ 신학이란 성경에 충실한 기초를 두고, “신앙”을 세우고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성령 의존적 신앙으로, 복음을 찾고 설명하는 일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학문이다. 신학교육은 교회가 복음 진리를 바로 알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칼빈은 신학의 위치를 “섬기는 위치”(serving position)에 놓았다. 즉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돕는 것이 신학의 자리요,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 신학의 관계는 필요 불가한 관계인 것이다³⁶⁾.

칼빈은 신학을, 전달되어야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초로 보았다. 교육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접근에 따르면, 신학은 교육의 주제를 결정하는 확고한 기준이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의 입장을 취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위해 과거와 현재의 교육 작업에서 교회의 실천을 분석, 평가하는 비판적 작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학은 교수되어야 하는 것과 교육방법론을 위한 참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³⁷⁾.

칼빈의 교육에 있어서도 신학과 교육의 목표가 일치되어야 함은

35) 김득룡, 「기독교교육원론」(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0), 193.

36) Ibid., 20.

37)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서울: 이레서원, 2002), 203.

물론 교육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Soli Deo Glora) 이었다. 그래서 그는 <교리 문답>의 제일 문에서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나고 묻고, 그것의 답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칼빈은 교육과 신학의 관계를 균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그 위에 교육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인간의 삶과 교육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육원리와 방법

칼빈은 그의 신학사상을 토대로 교육 원리와 방법을 정립하고 있는데 그의 교육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다. 이와 같은 칼빈의 교육원리와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의 교육활동과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살펴 보아야한다.

가) 교육활동과 목적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가르침의 목적.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또한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었다. 칼빈이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창조물의 행복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다.

즉 칼빈은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기도하다. 따라서 모든 교육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궁극적인 교육 목적으로 삼아야한다.

칼빈의 이 교육목적은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도 적용된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칼빈은 종교교육 못지 않게 일반 교육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일반 학과는 하나님의 지식을 충분히 알도록 돕는 기초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신으로부터 발원되지 않고 확고하게 배워야 할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정당한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러한 예술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령으로부터 발원되었다. 그리고 예술로부터 경험되어지거나 유래되어지는 이익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한다.”³⁸⁾ 즉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칼빈의 교육 목적은 매우 총괄적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된다. 과거는 문화 유산으로, 현재에는 오늘날의 필요한 요구로서,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소명으로 주신 직업에 대한 준비로 각각 적용된다. 또한 학생들의 영적, 지적, 육체적, 문화적, 직업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칼빈의 교육 사상에 있어서 일차적 목적인 동시에 핵심인 내용이다. 따라서 칼빈의 교육 과정은 내용 중심적이거나 방법 중심적이거나 또는 학생 중심적이 아닌, 목적 중심적이다. 즉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⁹⁾.

38) Elemer L. Towns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rids: Baker, 1975), 217.

나) 교육 내용

현대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의 교육 내용은 권위적이고 성경과 신학에 기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칼빈은 성경으로부터 직접 교육의 주제 내용을 이끌어냈고, 성경에서 그 메시지의 권위를 찾았다. 결국, 칼빈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개념은 자신만의 유일한 개념임을 암시한다.

황성철 교수는 칼빈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³⁹⁾. 먼저, 칼빈은 교육을 교회의 본질적 기능으로 간주했다. 그는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평생 배우는 자로 학교를 떠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칼빈의 교육의 중심과 내용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칼빈에게 인간의 존재와 활동은 하나님 없이는 무의미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참된 가치도 이해하거나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적 추구를 통해서 모든 사상과 이성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일관된 사상이다.

셋째, 칼빈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은 학생 중심이나 방법 중심인 커리큘럼이기보다는 오로지 목적 중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르쳐야 할 교육 자료와 이용해야 할 교육 방법에 관한 칼빈의 모든 진술은 제한된 목적에 종속되어 있었다.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넷째, 칼빈의 교육의 중심은 교리 교육이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39)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200.

40) Ibid., 191-193.

개혁주의 복음신앙에 견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리교육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믿었다.

다섯째, 칼빈의 전체 목회 사역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윤리와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기독교인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삶에 대한 평범한 관심으로부터 초월하여 구원을 구하는 자였다. 소명과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은 이웃을 섬기고 사회적 선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이러한 교육의 주제 내용으로 칼빈은 진실하고 오류가 없는 오직 하나의 원천, 즉 성경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성경은 칼빈의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였다. 흠 없는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의 충실한 전달은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었다. 교육의 내용인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이고, 이것은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

요약하면 칼빈의 교육의 중심은 학생도, 교사도, 아닌 하나님이다. 즉 기독교적인 교육은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교육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칼빈은 성경을 근거로 모든 교육 행위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천하였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강해했으며, <기독교 강요>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교육하기에 힘썼다.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의 교육을 위해 <신앙지도서>와 <교리 문답>을 저술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교회 법규 속에서 이런 성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였고 모든 교육 활동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칼빈이 생각하는 교육의 기본과목이

지만 성경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자연과학, 법률, 역사 등의 과목들도 중시하여 가르쳤다. 그는 진실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과목을 다 교육내용에 포함시켰다. 칼빈은 인간주의적 교양과 지식을 체득하였지만 결코 그것만을 숭상하지는 않았다. 그는 철학을 배웠지만 그것에 얽매이거나 동화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 하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판하였다.⁴¹⁾

다) 교육 방법

칼빈은 교육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교육학자나 교육 사상가는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한 교육 실천가였다. 이 사실은 그의 교육 방법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칼빈은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의 교육방식대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칼빈의 교육 방법을 보면, 먼저 그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단계별로 성경을 해설하는 설명식, 주입식, 토의식, 등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고, 교회, 가정, 학교가 모두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였다.

칼빈의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엄격하고 강한 훈련 방법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인간의 모든 자아 의식은 타락한 것으로 보았다.⁴²⁾ 그러므로 인간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

41) 홍치모, 「종교 개혁사」(서울: 성광문화사, 1977), 146.

42) Elmer L. Towns, 173.

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교회 규칙과 법규를 지키는 생활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같은 규율 있는 훈련은 중세기 수도원에서 강조된 ‘침묵의 복종’과는 달랐다. 복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 즉 책임 있는 시민 형성을 위해서 규율이 극도로 중요시 된 것이다.⁴³⁾ 그래서 그는 엄격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금욕과 인내를 요구하였으며 여기에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잔인하리만큼 중한 벌을 내렸다.

둘째, 단계별 다양한 교육 방법이였다. 칼빈은 학습을 지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어떤 경우에는 주입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문답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토의식을 사용하였다. 그는 처음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주입식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암송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⁴⁴⁾ 그러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 법으로 바뀌어서 학년말에는 어떠한 문제를 내어놓고 학생들 스스로가 쓰고 답하게 했다. 특히 교리 문답에 대하여는 학생 스스로가 쓰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가정, 학교, 교회의 연계 교육을 추구하였다. 칼빈은 그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을 학교나 교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 가정, 교회에 똑같은 기대를 가졌다. 그는 교육 기관을 말할 때 학교만 언급하지 않고 교회도 하나의 교육 기관으로, 가정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생각하였다. 즉 교회를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보지 않고 가르치는 장소로 보았으며,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그들의 자

43) 오인탁 외 4인, 「기독교교육론」(서울: 대한 기독교교육협회, 1990), 134. 재인용: 김영무, “John Calvin의 개혁주의 교육관에서 본 John Dewey의 경험 교육론 비판”(충신대학교 교육 대학원, 1998), 81.

44) Ibid., 171.

녀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기독교 생활양식을 훈련시키도록 요구하였다.⁴⁵⁾ 그러므로 학교, 가정, 교회는 똑같은 기관이요 교육의 장으로서 이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가정,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로 교육에 임해야하며,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⁴⁶⁾ 즉, 어떤 때는 목사나 장로,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에 협력했고, 또 어떤 때는 교사나 부모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실제 교육에 임했다. 교육을 어느 한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노력했던 것이다.

칼빈의 교육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한 방법이 교육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행동법칙들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육의 방법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 성경의 조명 아래 평가받고 재해석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45) Eavey, C. B, 김근수. 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6), 200. 재인용: 김영무, “John Calvin의 개혁주의 교육관에서 본 John Dewey의 경험 교육론 비판”, 82.

46) Ibid., 168.

Ⅲ. 칼빈의 교육 사상(카레키즘 교육)의 실천

1. 칼빈의 교리 교육과 교육 목회

Calvin은 제네바의 종교 개혁자로서 그의 생애 동안에 개혁된 교회의 설립을 위하여 일하였다. 이러한 개혁 교회의 설립의 원동력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칼빈의 교회 교육에 있어서 교리 교육의 관심과 이러한 교리 교육에 기초한 그의 제네바 목회 사역은 언제나 개혁 교회의 전통으로는 하나의 본보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은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였으며 동시에 그는 복음을 가르친 교육자였다. 그가 이룩한 업적과 남긴 정신과 사상의 유산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려는 교육 목회의 이론과 실제의 원리적인 본보기를 발견한다. 특히 칼빈의 교리 교육은 그의 교육 목회에 있어서 하나의 관이요, 틀이요, 중심이요,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1) 칼빈의 교리교육의 이해와 사상

칼빈만큼 교리(doctrina)란 말을 중요한 의미로 사용한 사람은 드물다. 칼빈은 교리가 교회의 기초이며,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의 신앙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칼빈은 교리를 설교(praedicatio)의 의미와 동등하게 사용하면서, 설교는 교리인 동시에 교리를 전달

47) 정일웅, 「교육 목회학」 (서울: 솔로몬, 1993), 315.

하는 것으로 가르침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또한 칼빈은 교육 목회의 기본적인 틀로서 교리교육을 성례전과 연결시키고 있다.⁴⁸⁾ 이러한 칼빈의 기본적인 교리 교육 사상에 기초해서 칼빈의 교리 교육을 교리, 성례, 설교의 3가지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가) 교리의 의미

칼빈의 교회교육의 중심 과제는 교리(doctrina)를 가르치는 데에 있었다. 칼빈은 그가 교제했던 영국의 한 성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의 교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술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 교육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선한 씨앗이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는 것처럼 왕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붕괴되지 아니하고 튼튼히 서있는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아주 인상깊게 이 신앙 교육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끌어지도록 염려하고 돌보시오!”

(Eduard Seymour에게 보낸 편지 1548. 10. 22).⁴⁹⁾

칼빈은 교리 교육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으며, 아이들이 굳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신앙 교육서를 통해 믿음으로 이끌어지도록 돌보라!고 부모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칼빈은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해를 갖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계시를 교리로 본다. 둘째 성경과 성경내용의 총체를 뜻한다. 셋

48) 정일웅, “칼빈의 교리교육과 교육 목회”, 「신학지남」, 제223권, (1990, 3), 74.

49) 재인용: 정일웅, 「교육 목회학」, 325.

째 교회의 교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교리는 교회의 근거요 바탕이라는 것이다. 원래 교리란 가르침을 뜻하며 교회를 중심한 그리스도인의 세상적 삶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요 기독교 종교의 가르침이다.

칼빈은 이러한 교리 교육을 교회 교육의 중심 자리에 놓으면서 교리에 의한 교회 교육의 유익성을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의 내용에서 찾고 있다.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삶을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올바른 삶에 대한 자극(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을 준다.⁵⁰⁾

특히 칼빈은 교회를 ‘교리 학교’(school doctrine)로 강조하였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고대 교회에서 행해진 방식대로 가르치는 장소로서 교회를 이해하였다. 비록 신자의 삶에 형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교회를 학교로서 강조하는 것은 그의 저서와 목회에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제네바 교회에서 교사들에 의해 다뤄진 교육 내용은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된 기독교 교리였다.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영원한 구원 혹은 영원한 저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인간의 의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가르쳤다.⁵¹⁾

이러한 칼빈의 교리 교육은 대표적으로 제네바 신앙교육서(Genfer katechismus:1437/1542)에서 발견되며, 칼빈의 교회 교육의 중심을

50) Ibid., 318.

51)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65.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학습자 교육과 입교자 교육, 가정 중심의 교육과의 관계에서 교육적 목회의 이론과 원리가 되었다.

이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으로 설교, 예배, 교리문답 그리고 징계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나) 설교

교인들의 신앙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신자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신자 개인의 삶과 신앙 공동체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일차적인 수단이었다. 목회자로서 칼빈은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 설교를 하나의 은총의 수단으로서 이해했다.

설교의 형식은 성경에 대한 강해로 되어 있었고, 설교의 원천이자 내용은 성경 말씀이었다. 강해자로서의 칼빈은 인문학과 철학의 모든 기술을 효과적으로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칼빈의 설교는 교리 교육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교육적 성격이 강하였다. 루터는 칼빈과 달리 설교와 교육을 분명히 구분한다. 루터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인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지만 교육은 인간의 책임에 속한 부분이며, 세상 적인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⁵²⁾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로서 그 은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설교는 필연적으로 교육적 이어야한다. 또한 칼빈은 설교를 성경에 대한 강해 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적용이라고 보았다. 그는 성

52) 양금희, 「종교 개혁과 교육사상」, 126.

경을 한 자, 한 자 풀어낸 것처럼, 성경을 회중의 삶과 그 삶의 현장에 한 구절 한 구절 적용시켰다. 따라서 그의 설교는 항상 교화를 위한 실제적인 관심에 있었고, 제네바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속으로 직접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설교는 교회 원의 신앙 진보를 위한 결정적인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칼빈은 보았다.⁵³⁾

다) 성례

칼빈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 교육을 성례전과의 관계성 안에서 시행해 나갔다. 성례를 위한 교육의 대상은 크게 어린이와 성인으로 나누어지고, 교리교육의 목적은 성례전에 올바르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a) 유아세례자의 요리문답 교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리 교육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앙 안에 거하고, 양육되어지며, 마침내 세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요리 문답 교육을 받고, 일정 나이가 되면 요리 문답 교육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요리 문답 교육은 교회 안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가정과 학교, 교회의 삼각관계 속에서 반복, 보충, 계속되었다. 그것은 교리 교육이 이론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위함이었다.

53) 정일웅, 「교육 목회학」, 329.

그리고 이러한 요리 문답 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교리 내용에 대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입교 인으로서,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b) 성만찬 참석을 위한 성인 교육

어린이 요리문답과 유아세례는 성인 교육과도 연결점을 갖게 된다.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데는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부모의 혹은 대부모의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주기 전 혹은 주고 나서도 문답 교육을 받아야했다. 칼빈은 신앙의 단계를 어린이와 성인으로 구분하고, 성인도 역시 초신자와 기존 신자로 나누었다. 초신자는 교리에 대해 무지하고 신앙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아야했다.

초신자를 위한 기초적인 교리 교육은 3개월 코스로 반복된 성인 학습자 교육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실시되는 설교가 있었다. 그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 교리교육이 보충되기도 했다.⁵⁴⁾ 3개월마다 반복된 기초 교리를 배운 초신자는 그 때마다 있는 시험을 거쳐서 합격이 되어야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입교인으로 수용될 수가 있었다. 기존 신자들도 초신자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았으나, 그들에게 교리 교육은 기초적인 것 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함이었으며,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성찬에 항상 참여할만한가를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가정 심방, 성경연구 모임이 실행되었다.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할 책임은 기독교인 부모들의 의무이자 특권

54) 정일웅, 「칼빈의 교리교육과 교육목회」, 75.

이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양육과 훈계로 그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할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빈이 교회와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위치를 계약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제네바 시에서 칼빈은 교리교육을 성례전과 연결시켜서 시행했다. 즉 교리 교육을 받고, 그것을 숙지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성례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리교육은 성례전을 위한 준비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칼빈의 교회 교육의 실제

1) 교리 문답 교육

칼빈의 제네바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심장은 교리문답을 통한 가르침이었다. 그는 설교를 제외하고, 교회의 삶에서 교리문답을 통한 가르침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교리문답은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리문답에 대한 칼빈의 애착은 대단한 것이었다.

교리문답에 대한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칼빈은 로마교회에서 교리문답 대신에 했던 ‘견신례’가 믿음의 고백과 암송과 같은 수준의 것임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신앙고백을 하지 않으면, 세례 받을 특권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교리문답을 받아들일겠다고 고백하면 이것은 교회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당시 감독 법원의 기록에 의하면 교리문답을 따르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순종자들에게는 종종 징계가 내려졌다. 매주일 정오에는 제네바 시 세 곳의 교구에서 교리문답 교육이 동시에 베풀어졌다. 이 교육에 빠진 사람들은 설교 듣기를 회피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어떤 사람이 교리문답 교육에 참석하라는 감독 법원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시 당국자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엄명한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감독 법원이 부모들에게 내린 최소한의 요구 사항은 자녀들에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매주 교리문답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공립학교의 매일의 시간표에도 교리문답 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교리문답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기독교 교리의 객관적인 가치에 대해서 칼빈이 확신을 갖고 취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평가해 보면, 충분히 명확해진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그 자체에 권위와 권능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져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혼의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무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문답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며, 또한 가장 쉽게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된 요약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면, 자연히 교리문답은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배를 수행하도록 돕는 가장 훌륭한 도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일 교리의 가르침이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기본적인 과제라고 했을 때, 교리문답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⁵⁵⁾.

가) 교리 문답 교육서

칼빈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의 신앙을 양육하기 위해 교리 문답집을 썼다. 그것은 ‘제네바 교회의 교리 문답’과 ‘신앙고백서’이다. 칼빈이 쓴 ‘제네바 교회의 교리 문답’(1541)은 질문-대답의 형식으로 쓰여졌으며, 전체 37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다. 칼빈은 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교회 교육을 실천해 나갔다. 교리 문답을 통해 칼빈이 실천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경건의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종교적인 진리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예배 가운데 속한 성찬이나 세례와 같은 성례의식이 의식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성도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교육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⁵⁶⁾

나)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

칼빈이 머물렀던 당시의 제네바 시는 정치적으로는, 교황권과 황제권 으로부터 자유시로의 자치권을 획득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자유시의 면모를 갖추었다.⁵⁷⁾ 또한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무지 그리고 무 교육이 만연했고, 그들의 윤리 생활과 준법정신은 매우 저속했으며 잔인했다. 종교적으로는 윌리엄 화렐(william Farel, 1489-1565)의 영향으로 시의회의 결의에 따라 로마교회의 미사가 폐지되고, 대신에 개혁교회의 교리와 예배의식과 교육제도 등이 제시되기 시작했다.⁵⁸⁾

55)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180-182.

56) 정웅섭,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7), 108.

57) 홍치모, 「종교 개혁사」, 148-150.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개혁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등 신앙의 내용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였고, 그들 가운데 다수는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로 종교 개혁을 택하기도 했으며, 로마 교회 신자들로 은밀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칼빈이 제네바에 돌아와 목회 활동을 재개했을 때,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이 교리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리에 대한 지식이 신앙 생활의 기본적이라고 생각한 그는 제네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이유로 칼빈은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목적과 핵심 된 내용을 교육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던 것이다. 칼빈은 먼저 1차 적으로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를 요약하여, 모두 58조항으로 된 <제네바 요리 문답>을 작성했다. 이것은 칼빈이 제1차 제네바 시절을 보내던 1536년의 일이었다. 명칭은 <요리 문답>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문답 형식을 갖추었던 것은 아니었다.⁵⁹⁾ 칼빈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는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다.

특히 칼빈은 1537년 6월 제네바에서 처음 교사로 머물면서, 어린이의 교육을 위한 요리 문답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1537년 2월에 최초로 제네바 교회가 사용할 신앙의 교리 및 고백서인 요리 문답을 공포하였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문답(Katechismus Genevensis prior)이라 명명하였다.⁶⁰⁾ 이 기독교 교리 문답서는 전체

58) Ibid., p. 150.

59) 박일민, 「개혁 교회의 신조」(서울: 성광 문화사, 1998), 74.

60) 김득룡, "칼빈의 교회 교육 연구", 「신학 지남」, 제205권, (1985. 6), 61.

가 58장이고, 21개조의 신앙고백으로 되어있으며, 제네바 시민의 서명이 있다. 1541년 제네바 규칙에 “이것에 따라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 바로 거기서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여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 지를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우 현저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하여 칼빈은 그 기독교 교리 문답서를 1545년에 라틴어로 번역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제네바 요리 문답서’이다. 칼빈은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철학이나 사색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찾아오신 계시를 의지했다.⁶¹⁾ 같은 맥락에서 그의 <제네바 요리 문답>은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목적으로 교리를 체계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 교리란,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계시의 사건이요, 성경과 그 내용의 총합이요, 바로 교회의 시작과 근거가 되는 가르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 교육은 교회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총 373문으로 되어 있는 <요리 문답>은 모두 55과로 나누어 일년 52주일과 세 절기에 각각 한과씩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기초로 작성된 <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믿음에 관하여(사도신경 해설,1-130문), 2부- 율법에 관하여 (십계명 해설, 131-232문), 3부-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 해설,233-295문), 4부-하나님 말씀(296-309문)에 관하여, 5부-성례(310-373문)에 관하여로 되어 있다.

『제네바 교리문답서』의 교육 양식은 1537년 교리문답서인 『신

61) 박일민, 「개혁 교회의 신조」, 78.

양교육서』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인다. 먼저 율법을 다루기에 앞서서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는 점이다.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기초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심을 알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간략하게 ‘자신의 기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다(요 17:3).

두 번째로 이 교리문답서에 율법을 새롭게 삽입한 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한 번 더 강조하려는 칼빈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칼빈은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예비 조건’이 아니라, ‘삶의 규율’로서의 기능이라고 이해했다.

마지막으로, 교리문답의 네 번째 단락에서는 율법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언급도 없다. 오직 성례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섬기는 은총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의 성스러운 말씀’을 통해서이다. 영적 교리는 일종의 문으로서,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또 다른 수단인 설교는 성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인 것이다.⁶²⁾

칼빈의 <요리 문답>의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제네바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지만, 이는 성인들을 위한 기독교 수업을 위해서도 사용된 교재이다. 따라서, <요리 문답>은 세례와 입교를 위한 교육과 회중 앞에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유용했다. 후에 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의 개혁 주의적 전승의 기초가 되었다.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문답식으로 된 <제네바 요리 문답>은 질문과 대답이 계속됨에 따라, 첫 질문과 대답에 관한 내용이 더욱 강조되고 심화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빈의 요리 문답의 서두는 그의 교육 사상

62)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48-50.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목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린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네바 요리문답>을 통해 칼빈의 교육 사상은 매우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얇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얇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적인 얇으로서의 ‘경건’인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⁶³⁾고 말했다.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네바 요리 문답>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도 신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통해 언약의 규범을 보여주며,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모범을 교육하는 것이 교리의 핵심이자, 교회 교육의 내용이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신자들의 교회가 반대 없이 동의한 신조의 조항을 가르치도록 했다.⁶⁴⁾

다) 신앙 고백서

제네바 시민의 신앙 교육을 위해 칼빈은 “신앙 고백”을 제정하여 그것을 전체 시민들에게 선서하게 했다. 그가 저술한 “신앙 고백”은 모두 21개조로 되어 있다. 이 “신앙 고백”은 교육적 내용을 지니고 있고, 그 내용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치적 지도자의 임무까지

6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1권 2장 1절, 83.

64) Richard R. Osmer, 박봉수 역, 「교육 목회의 회복」(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9), 160. 재인용: 고수진 “칼뱅의 교회 교육론” (장신대 신대원, 1999), 55.

를 망라한 기독교의 요약 판과도 흡사하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시민 전체가 기독교 교리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화 하는 것이 올바른 교리 교육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칼빈은 “신앙 고백”이 국가 차원의 신앙의 기초로서 과기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 선서식을 통해 승인되어야함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서둘러 시의회와 가결과 지원을 얻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띤 시민들의 신앙 고백선서를 받았다. “신앙 고백”은 1537년 4월에 인쇄 배포되었고 전체 시민의 교육을 위해 매 주일 마다 설교 강단에서 읽혀졌다. 그리고 후에 이 “신앙 고백”은 모든 개혁 교회의 신앙 고백 형식의 길을 열어줬다.⁶⁵⁾ 칼빈은 교리 문답 교육을 세례와 성찬과의 관계성에서 실행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성인교육이 그것이다.

2) 어린이 교육

가) 어린이에 대한 이해

칼빈 당시의 모든 어린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유아 세례는 종교 개혁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도 했다. 이 유아 세례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반대자들은 유아세례는 무익하다고 보았다. 어린이는 신앙 고백을 하거나,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칼빈은 어린이가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

65) 정웅섭,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 116.

는다. 칼빈은 어린이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성령께서 역사 하셔서 회개의 역사, 신앙의 감동과 구원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성경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여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음적 신앙의 요점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목사가 시험하여 그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제네바 시의 장래를 복음적 신앙으로 확립시키려고 하였다. 칼빈은 아동은 경건에 의거한 생활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동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배워야 하는데, 단순히 마음과 말로써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모든 생활이 성경에 복종하는 것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답변만이 구원에 관해서 아동이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였다.⁶⁶⁾

즉 칼빈은 어린이가 세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성장하면서 분명히 깨닫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세례가 그들의 지속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거듭남의 삶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⁶⁷⁾ 칼빈의 어린이 교육은 유아 세례와 더불어 완벽한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존재로서의 어린이, 그리고 지속적인 기독교적 성장이 주된 관심사였다.

나) 가정 교육

칼빈은 가정을 기본적인 교육 기관으로 이해했다. 그는 가정이 일차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했으며, 좋은 가정을

66) 박동순, “칼빈과 교육”, 324-325.

67) 양금희, 「종교 개혁과 교육사상」, 138.

만들기 위한 훈련과 자녀들을 위한 부모 훈련, 그리고 건전한 가정의 삶이 좋은 정부와 사회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반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칼빈의 주요한 교육적 입장이었다.

칼빈은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가정이 어린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여하셨다고 본다. 부모의 자녀 교육의 책임에 대해서, 칼빈은 성경과 세례를 근거하여 설명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한다.⁶⁸⁾

칼빈은 부모가 해야하는 교육의 일차적 과제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세례시, 세례 받는 아이의 부모와 대부모(compere)⁶⁹⁾에게- 대부모는 이방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교리 문답 시험을 하고, 동시에 부모들은 아이에게 성실히 교리를 가르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 약속에는 자녀를 규칙적으로 교회에 보내어 교리 문답 수업을 받도록 할 것도 포함된다.

칼빈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하며 기독교 생활양식을 훈련시키도록 요구하였다. 목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모든 가정을 심방하여 부모들이 이같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모의 이러한 모든 교육 책임 수행에 대해 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었던 교회는, 부모에게 경건한

68) Ibid., 139-141.

69) 대부(대모)모 제도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영적 부모로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삶을 살 것을 때로는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권면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장로의 모임에 소환하고 그림에도 교회의 충고에 순종하지 않으면 시의회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침을 통해 자녀 곧, 성도의 성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다) 학교 교육

칼빈은 어린이들은 5,6세부터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네바에 있는 학교들에서 초보적인 교육을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경, 읽기와 쓰기, 문법 그리고 수학을 공부해야 하며 이 과목들은 다 모국어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교양과목의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아울러 칼빈은 성경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여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음적 신앙의 요점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목사가 시험하여 그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제네바 시의 장래를 복음적 신앙으로 확립시키려고 하였다. 칼빈은 어린이들은 경건에 의거한 생활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동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배워야 하는데, 단순히 마음과 말로써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모든 생활이 성경에 복종하는 것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다⁷⁰⁾.

그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목사 양성과 국가에서 필요한 건전한 시민양성에 두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르는”기

70) 박동순, “칼빈과 교육”, 324.

독교 교육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비단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인문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인 교리 교육과 성경 공부였다. 교리 교육(Katechismus)은 학교에서 보충되었는데 6-7학년에는 라틴어와 불어로 된 Katechismus를 라틴어 훈령에 학습 교재로 사용하였다. 교리 문답서의 중요한 부분은 항상 반복되었고, 방과 시에는 주기도문, 신조, 십계명을 암송하게 했다.⁷¹⁾ 입교 준비반의 교리 교육은 교회에서 기본적인 학습이 진행될 뿐만 토요일 오후 3시에 학교 수업에서 반드시 전 주일에 배운 것을 복습시켰다. 교리 교육에는 성경도 함께 다루어졌고, 이러한 학교에서의 교리 교육에는 기도훈련도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예배와 함께 찬송 부르기(시편을 중심한 노래), 그리고 성찬도 자주 행하였다.⁷²⁾

칼빈에게 학교 교육은 가정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회 교육의 연장이며, 보충이다. 칼빈은 학교 교육에서 기독교적 교육과 인문 교육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라)교회 교육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 교회 교육의 연장이며, 보충임을 보았듯이 요리 문답 교육의 중심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의 교회에서의 교리 교육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성인의 초신자들을 위해서도 이루어졌다. 초신자들의 교리와

71) 김득룡, “칼빈의 교회 교육 연구”, 65.

72) Ibid.

신앙 지식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또한 교리 교육은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에게도 매 주일 오후 집회 때 교리를 따라 설교하도록 함으로서 시행되었다.⁷³⁾

어린이를 위한 요리 문답 교육은 매 주일, 정오에 제네바에 있는 세 교회 즉 성 필레 교회(St. Pirre), 성 제루비아(St. Gervais), 비헬렌(Madeleine) 교회에서 어린이를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회건물은 예배의 장소로 사용됨과 동시에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되었다. 칼빈이 그의 교육활동에서 교리교육을 강조한 것은 교리 교육을 통하여 전체적인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회 교육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⁷⁴⁾ 모든 시민 및 거주자는 이 정오에서부터 요리문답 교육에 데리고 와야만 했다. 여기서 어린이들이 가르쳐진 교리와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했다. 그리고 제네바 요리 문답은 그 때문에 52주일과 3대 절기(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 강림절)의 준비일 모두 55일로 분할하여 가르쳐서, 그것이 1년 1회로 완료되도록 한 것이다.

3) 청소년 교육

종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경건하게 훈련받았으며, 이 교육에는 세 가지 유형의 교리문답이 사용되었다. 부모들에 의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과 교사들에 의해 학교에서 사용되

73) 정일웅, “칼빈의 교리 교육과 교육 목회”, 74.

74) 박동순, “칼빈과 교육”, 325.

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이 있었다. 공무원들은 이 교육적인 사역을 촉진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기독교 진리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했으며, 그들의 참된 경건을 배양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교육시켜야만 했다.

교회는 청소년 교육의 책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지식의 이해를 위해 교리 적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교리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목회 적 차원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까지 실천되었다.

가) 가정과 교회 교육

칼빈의 청소년 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교육을 빼 놓을 수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일에는 칼빈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부모의 의무이다. 특히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유아세례에서의 약속과 관련하여 청소년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지워진 것으로 생각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믿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여긴다. 신학적으로는 은혜 언약과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구원은 일차적으로 가정의 부모에 의하여 교육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칼빈의 교육 목회의 출발은 유아세례자들이 청소년 나이에 이를 때 그들에게 집중적인 신앙의 초보자 교육으로 교리 교육이 실시된다⁷⁵⁾.

칼빈은 부모의 가정 교육의 임무는 먼저 교리 안에서 가르치고, 다음으로 도덕적 훈련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지도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칼빈에게는 유아세례에 대한 대부(Paster)의 역할이 중요하

75) 정일웅, 「교육 목회학」, 322.

게 인정된다.

세례 받은 아이와 청소년들의 교리 교육의 책임은 가정에서는 부모이지만, 대부제도는 부모를 잃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대신 돌보아 주어야 할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유아의 세례 시 부모와 대부는 반드시 교회의 교리 교육 시간에 자녀를 보낼 약속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부모의 신앙교육은 교회의 계속적인 구성과 존속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회 교육의 연장이요, 동시에 교회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청소년 교육의 중심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침이 중심을 이룬다. 자녀들이 교리의 기독교적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지닌 모형체로 생각된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딤후전 3:3-5).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즉 자녀 교육, 보호 양육의 책임은 곧 교회의 목회 사역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⁷⁶⁾

나) 학교와 교회 교육과의 관계

칼빈의 사상 체계 안에서 교회와 학교는 상호 의존적이었다. 교회는 학교와의 관계에서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결정해 주었고, 말씀과 성례의 목회를 통해서 그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 반면에 학교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먼저 교회에는 자격을 갖춘 목회자와 교사 그리고 실력 있는 평신

76) Ibid., 323.

도를 공급해 주었고, 나아가서 국가에는 그리스도인 집권자와 기독교 시민을 양성해 주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특별히 교사와 목사는 같은 사명을 공유한 협력자들이었다.⁷⁷⁾

칼빈은 제네바에서 인문학교와 대학을 세웠다. 칼빈에 따르면 이 두 학교는 특별한 임무를 띤 것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배우는 청소년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의 직무에 대한 준비와 세상의 여러 직무에 종사하도록 그 자질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와 학교 주일예배와 학교에서의 신앙 교육, 이 모두를 서로 연결되게 한 것인데 예배에서 듣고 받아들인 것은 학교교육에서 더 깊게 다져지고, 보충, 해명, 적용되게 한 것이다. 반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역시 교회 생활과 학교의 일상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했다. 예배는 여기서 신앙적 삶을 종합하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교 생활을 위한 지침과 내규는 비교적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배에 빠지거나 늦게 오거나 주의 깊게 설교를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했다고 한다. Akademie의 학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의무가 요구되었다. 그들은 제네바 Katechismus에 요약된 교리에 서약을 해야 했다.

학교는 역시 교리 안에서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며, 교회의 삶을 연결시키는 교회의 임무에 관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학교의 가르침은, 가정과 교회가 밀접한 연관 속에 교회 교육으로 집약되는 장을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회의 관계도 이러한 모습을 이루었다는 것을 뜻한다⁷⁸⁾.

77)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85-86.

한편 교육사가인 이비(Eavey)는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의 종교적 훈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⁷⁸⁾.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는 수업시간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기도나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끝난다. 낮에 한 시간은 시편을 노래하였고 오후 4시는 전교생이 모여 주기도문을 암송하였고, 신앙을 고백하며 십계명을 암송하였다. 수요일 아침에는 학생과 교사들이 설교를 경청하였다. 토요일 오후에는 전교생이 교리 문답서를 공부하였고 주일에는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남은 시간은 설교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일반적인 인문주의 교과과정 역시 강력한 종교적 교육을 포함하고 있었다. 시편을 노래하였고 공중기도를 드렸고 성경구절을 매일 암송하였다. 칼빈은 그 당시의 다른 모든 학교들의 교과과정이 인본주의적인데 반해서 종교적 훈련에 강조 점을 두었다.

제네바에서 칼빈의 이 같은 사역 및 기독교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네바는 사악과 죄가 크게 감소되고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도록 되었으며, 요한 낙스는 제네바는 기독교 훈련을 위한 하나의 완전한 학교라고 찬명하였다.

다) 교회 교육

앞에서 이미 소개한 것처럼 칼빈의 교회 교육의 중심 과제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칼빈이 두 번에 걸쳐서 집필한 제네바 신앙 교육서(Genfer Katechismus, 1437.1542)에서 발견

78) 정일웅, 「교육 목회학」, 324.

79) 벤튼 이비, 김근수/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6), 220. 재인용: 박동순, “칼빈과 교육”, 323.

할 수 있다. 칼빈의 이러한 교리 교육은 청소년과 나이에 관계없이 성인의 초신자들을 위해 교리 안에서의 신앙지식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 교육은 하나의 신앙 교육서를 통해 초신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에게도 매 주일 오후 집회 때에는 설교로 만들어졌지만 그 전체 내용은 매 주일 오후 설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52과(총55과)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주일 정오 12시에 교회에 모여 교리 교육을 받게 하였고 3개월마다 한번씩 Test를 거쳐 합격자에게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주도록 했던 것이다.

여기서 교리 교육을 성례전과 연결되게 한 것은 교육 목회의 기본적 원리 또는 틀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칼빈의 교리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신앙의 근본 지식, 기초 지식 그리고 본보기적인 것을 교리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곧 신앙적 삶의 원리요, 지침이요, 삶의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⁸⁰⁾

4) 성인 교육

칼빈은 교리 교육을 어린이, 청소년, 신앙의 초보자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를 더 깊은 신앙인식의 단계로 이끌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교리 교육을 통해 성인들이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을 성경에서 구분할 수 있게 했다. 칼빈은 종교 교육, 교회 교육의 끝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로서 그 학교를

80) 정일웅, 「교육 목회학」, 326.

졸업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갔을 때부터이다.⁸¹⁾ 그러므로 교육하는 교회는 모든 신자들을 평생 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칼빈은 성인 교육을 성찬 예식에 대한 참여 여부를 놓고 본다. 먼저 초신 자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교리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기존 신자들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성경 연구 모임을 가졌다.

가) 유아세례시의 문답 교육

칼빈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시하였다. 자녀들의 세례식에서 부모들은 서약한 대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양육시키는 데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 1537년 교회 법규에는 유아세례를 자녀에게 베풀게 될 때 부모 혹은 대부모는 회중 앞에서 문답을 가져야 한다. 유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주일 예배 시 신앙 문답 시간이나 다른 날 예배드리는 시간, 세례 예식을 베푸는 날 데리고 와서 엄숙하게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중 앞에서 문답을 해야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부모, 대부모가 참석해서 2시간 이상 문답에 응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에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했던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전 교인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주의 깊게 가르쳐야 했다. 이러한 의무는 설교에 의한 지속적인 훈계를 통해서 부모에게 권면 되었다.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신령한 삶을 살도록

81) 김득룡, “칼빈의 교회 교육 연구”, 69.

요구받았다. 부모의 행실은 기독교 신앙과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제네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해마다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폈으며 또한 열심을 다해서 가르칠 것을 특별히 부탁했다.⁸²⁾

나) 가족 심방과 교리 교육

교회와 가정은 별개의 교육 환경으로 상호 의존적인 접촉 지점을 가지면서도,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교회는 신자들인 동시에 한 가족의 어머니와 아버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두 기관은 교육적 기능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신자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칼빈은 부모를 첫 번째 혹은 제1의 교육자로 간주했다. 칼빈이 봄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는 자녀들이 세례식에 나올 때 부모가 필히 함께 해야만 한다는 서약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⁸³⁾

칼빈은 성인 초신자들의 집을 방문해 교리 교육(katechismus)을 보충했는데, 이것은 성인들의 교리 교육은 3개월 코스로 반복되었다.⁸⁴⁾ 칼빈은 1년에 4회씩 ‘성찬 시험’과 ‘심방’을 실시했다. 성인들 중 요리 문답 교육이 없었던 자들에게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시험의 주 내용은 기초적인 교리였다. 그리고 칼빈은 부활절 전에 교인들의 가정에 외

82)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66.

83) Ibid., 91.

84) 정일웅, “칼빈의 교리 교육과 교육 목회”, 75.

부에서 온 사람이나 하인들, 그 외 성찬을 위한 시험을 받지 않은 식솔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심방하고 그들을 직접 시험하였다⁸⁵⁾.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입교 인으로 환영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리 교육은 어린이 교육과 마찬가지로 성례전과 관련되어 시행되었다. 어린이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를 위한 요리 문답을, 성인은 부모의 교육적 책임의 차원에서, 자녀의 유아세례를 위한 문답과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기 위한 요리 문답과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어린이와 성인 교육의 차이점은 어린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더 두드러지게 성인에게 있어서는 교리 교육이 이론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성경 연구 모임과 설교

교리 교육에 대한 가르침 외에도 기존 신자들과 목회자들의 성경 연구 모임이 있었다. 성찬 시험이나, 가정방문들이 교인들에게 기초적인 교리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성경 연구모임’(Congregation)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었다. 이 모임은 매주 금요일 아침 9시에 아카데미 강당에서 실시되었는데, 목사와 평신도가 모두 참여해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의 성경 고전 어와 7자유교과와 성경해석이 주요 교과내용이었고, 수업 형식은 세미나 및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이었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로 볼 때 이 ‘성경연구모임’은 목사 계속 교육과 평신도 지도자 수업의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85) 양금희, 「종교 개혁과 교육사상」, 150.

때때로 Katechismus의 내용도 다루었다고 한다. 이 ‘성경연구모임’의 목적은 성인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깊은 지식과 이해 속에서 살도록 돕는 데 있었다.⁸⁶⁾

성인 교육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주일 오후 예배에서의 ‘설교’이다. ‘설교’는 성인 교육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교리를 근거로 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간주 할 때, 교리에 바탕을 둔 설교는 교육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예배의 중심에 설교를 두었고, 지속적인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의 임무는 주로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교회의 교육 목표와의 관계에서 바른 목사들에게 “하늘의 교리를 설교해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교인들에게는 주일 예배 설교를 비롯해서, 설교를 되도록 자주 들을 것을 권고했다⁸⁷⁾. 칼빈은 설교에 커다란 관심과 비중을 두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다. 칼빈은 설교가 교회의 영광 같다고 하면서 제네바 교회에서 매일 설교를 포함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고, 교인들로 하여금 자주 규칙적으로 설교를 들을 것을 강조하였다.

라) 경건 훈련

칼빈의 교육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기독교 신앙과

86) Ibid.

87) 정일웅, “칼빈의 교리 교육과 제네바 신앙 교육서 연구”, <교사의 벗> 제12호 (서울: 한국 기독교교육연구회, 1998. 겨울), 148.

교리의 가르침이 경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생각은 항상 신자의 실천적인 삶으로 향해 있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삶에 연결시켜 기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16,17세기의 개혁가들 중에는 기독교적 행위가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확신에 있어서 칼빈만큼 열정적인 사람 없었다. 칼빈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교인들의 행위를 일치시키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윤리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칼빈의 중심 사상을 요약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바른 가르침 없이 기독교 윤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⁸⁸⁾

칼빈의 교리 교육은 이론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되어 삶 속에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한다. 칼빈은 교리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삶과 행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리 교육이란 교회가 ‘질서 유지가 제대로 지속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 뿐’ 아니라 경건 훈련(Deciplina)이란 ‘하나님 말씀에 경건한 마음으로 순복 하여 그 모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⁸⁹⁾.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의 삶을 감독, 지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한다.

칼빈은 경건 훈련(Deciplina)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에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그 말씀의 선포는 일방적인 말씀의 선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의 기능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권하고, 바르게

88)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66-67.

89) 김득룡, “칼빈의 교회 교육 연구”, 70.

하고,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규정으로 되어 있다. 칼빈은 이러한 훈련이 조직체로서 교회내의 질서로 그치는 것보다는 시민 생활의 질서이며, 사회 도덕이 되기를 소망했다. 교회의 경건 훈련과 간섭이 시민적 생활, 특히 사생활이 전 영역에 미치는 것은 교회의 신학적 태도인 동시에 법철학의 문제로서 당시에 유럽에서 정당화되었다.

또한 칼빈은 권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⁹⁰⁾ 라고 하면서 이는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가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질서 있게 바로 세운다고 역설하였다.

9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12장 1절, 279.

Ⅲ. 칼빈의 교리 교육과 역사적 카테키즘이 현대 교회에 주는 의미와 적용

1. 카테키즘 교육의 회복과 적용

1)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카테키즘은 역사적으로 신앙의 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육 공동체의 유산이다. 그러면 이러한 카테키즘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제네바 신앙 교육서를 작성한 칼빈은 신자들의 신앙의 기초에 대한 무지와 바른 교리에 대한 가르침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어린이와 청년기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교육의 방법을 보존하기 위해 카테키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칼빈은 최선의 교육 방법은 지도서(指導書)를 준비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모든 기독교회가 찬성하며 반대하지 않는 신조의 대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샤프에 의하면 신조란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앙 고백, 또는 신앙이 내용을 언어 형태로 표현하되 그것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여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기거나 최소한 건전한 기독교회를 유지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⁹¹⁾ 유아 세례를 받은 청년들은 아직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으므로 소년기의 끝이나 청년기의 초기에 부모가 다시 그들을 감독 앞에 데려다가 당시의 일정한 교리 문답 형식을 따

91) Philip S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1. (Grand Rapids, 1977), 3-4.

라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청년들은 믿음이 안정된 후에 엄숙한 축복을 받고 물러갔다. 칼빈은 또한 부모들은 각성하여 자녀교육에 더욱 매진토록 했다. 칼빈에게서 카테키즘의 중요성은 무지와 오류를 교리로 극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다. 칼빈에게 카테키즘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즉, 구원의 진리와 삶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정일웅 교수는 그의 저서 교육 목회학에서 카테키즘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종교 개혁 시대에 나타난 신앙 교육서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또한 이로 말미암는 카테키즘의 교육 신학적 관점에서의 중요성과 의의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신앙 교육서의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면 신앙 교육서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치는 책이다. 둘째로 신앙 고백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신앙 교육서는 예전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목회 상담학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⁹²⁾

이어서 이러한 신앙 교육서를 통해 실시되는 교리 교육의 교육 신학적인 관점에서 중요성 다섯 가지를 언급한다. 먼저 카테키즘 교육은 신앙공동체의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전수한다 즉,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거나 배우게 할 때에, 우리는 세계관으로서의 교리 적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초보자와 성장 세대들은 그러한 세계관으로서의 교리 적 체계를 가르침의 내용으로 이용할 때 그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바로 역사적인 카테키즘은 이러한 신앙 교육의 책임을 위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서의 교리 적 체계를 따라 배우도록 하였고, 그것을

92) 정일웅, 「교육 목회학」, 352-353.

캐터키즘의 내용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캐터키즘의 교육은 지금도 현대 교회의 초신 자들과 성장 세대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의 방식이라고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때 쉽게 신앙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을 전수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독교적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서의 신앙 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캐터키즘은 원래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후에 이것은 교회의 성장 세대들의 세례 준비와 입교 준비를 위한 신앙 교육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터키즘은 원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리 적 차원의 내용을 배우도록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것을 통하여 학습자는 쉽게 자신의 신앙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관에 대한 것이다. 신앙 관이란 믿음의 눈을 뜻하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인식 능력, 또는 자질은 의미한다. 특별히 초신 자들과 성장 세대들에게는 교육 방법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캐터키즘 교육은 성경의 요약으로서 교리 적 체계를 중심 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재빨리 신앙에 눈을 뜨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 자신의 신앙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눈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교리 적인 선 이해를 통하여 학습자는 다시금 성경의 전체를 보는 눈과 동시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자질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은 역시 성경의 지나친

주관적인 해석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앙적 삶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인 캐터키즘은 언제나 그 시대 교회의 신앙 고백(Confession)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신앙 고백이란 언제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의 한 목소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앙의 표준과 공동 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캐터키즘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은 초신 자들과 성장 세대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통하여 일치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인도함을 의미한다⁹³⁾.

2) 칼빈의 교리 교육과 역사적인 캐터키즘의 현대 교회 상에서의 적용의 한계성

앞에서 살펴 본 대로 교리 교육은 칼빈의 목회의 중심이었으며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다. 칼빈은 이러한 캐터키즘 교육을 교회는 물론 학교, 가정에서까지 연결하여 가리켰으며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리 교육으로 그들의 신앙과 교육을 가리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칼빈의 캐터키즘을 비롯한 종교 개혁 이후 시대의 교리 교육은 오늘에 와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왜 이러한 신조와 교리 교육 그리고 교리 문답 설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한 먼저 역사적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달한 선교사들이 성경을 강조했다지만 고백은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점이다. 선교사들의 이 같은 가르침의 결과 한국 교회는 성경

93) 정일웅,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349-353.

의 영감과 그에 따른 성경 공부가 많이 강조되었지만 신조들의 중요성과 그 적용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못했다.

둘째로 실제적인 이유에서는 한국 교회가 그러한 신조들과 교리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다. 사실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그 고백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 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로서,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루터나 칼빈이나 웨스터민스터 신조들이 한국에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한국사람들의 신앙적 정서와 경험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구 교회의 신앙 정서와 생각을 반영하는 고백문서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⁹⁴⁾ 이와 함께 이러한 역사적인 캐터키즘은 현대 교회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하려 할 때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일웅 교수는 그 원인을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았다. 역사적인 캐터키즘을 단순히 캐터키즘에 담겨 있는 교리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가치만을 생각하고 가르침의 효과를 위한 방법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종교 시대 이후의 이러한 카테키즘 교육이 오늘의 교회에 있어서의 적용과 실천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성을 다음 세 가지로 지적한다.⁹⁵⁾

첫 째는 교과내용에 있어서 언어적 표현의 낙후성 때문이다. 이들 신앙 교육서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이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 책에 표현된 내용으로 학습현장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언어소통에 있어서 장애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94) 고재수, 「교의 신학의 이론과 실제」(서울: 디다케, 1992), 221-222.

95) 정일웅,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346-348.

것이다.

둘 째는 교과 내용에 있어서의 협의성 때문이다. 교과내용의 기본적인 형식은 구원의 도리와 윤리적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 성경신학의 새로운 이해로 나타나고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며, 현대 산업사회의 환경 속에서 윤리적 지침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본다.

셋 째는 학습 방법의 낙후성 때문이다. 이들 신앙 교육서는 간단한 문답의 연역적 방법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주입식 일변도의 학습이 전제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대의 신앙 교육의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대적인 학습 방법이 개발되고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일웅 교수의 세 가지 견해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오늘날 캐터키즘 교육의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언어적, 학습 방법의 한계성의 문제이전에 오늘의 한국 교회와 교육 지도자들의 캐터키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칼빈의 신학과 그의 성경 주석에는 많은 관심을 쏟지만 칼빈이 그러한 사상과 신학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가리켰는가? 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울러 역사적 가르침의 캐터키즘은 무조건 낡고 오래된 학습법이라는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저 역사의 시기에 거쳐왔던 하나의 교육체계이자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의 저서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하였다.⁹⁶⁾ 우리의 캐터키즘은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서 머무르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역사적 캐터키즘의 현대 목회적 적용 가능성

정일웅 교수는 역사적 캐터키즘의 사용은 오늘날에 와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첫째는 교회가 역사적인 캐터키즘을 학습인과 세례 청원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캐터키즘이 아직도 교회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 하겠다. 둘째는 역사적 캐터키즘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어 해설서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캐터키즘의 교리 적 내용을 현대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시대마다 새로운 언어로 설명해 놓은 해설서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서구 교회들에서 계속되고 있는 형태라 하겠다. 셋째는 역사적인 캐터키즘의 형태를 종결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캐터키즘으로 변신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범주에서 나타난 캐터키즘의 유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⁹⁷⁾

1) 한국 교회의 학습·세례준비 교육에서의 사용

현재 한국 교회 내에 역사적인 캐터키즘 교육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 장이 있다면 그것은 학습인 교육과 세례 문답 교육의

96) Howard G, Hendricks,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 9.

97) 정일웅,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354.

형태에서이다. 이것은 지극히 전통적이고, 형식적이며, 또한 고답적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신앙 교육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교육은 일년에 한 두 번 행하는 세례와 성찬의 예전과 연결되어 지극히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주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또한 초신자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어서 교육의 반복의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교리 교육이 단순히 학습, 세례의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오늘 날 초신자 교육과 세례 준비 교육에 의식을 가진 목회자들은 제자 훈련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3개월 또는 6개월 간 집중적으로 신앙의 기초와 초석을 놓아주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교회들은 역시 살아 있는 교회들일 것이며, 벌써 현대적인 새로운 캐터키즘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⁹⁸⁾.

2) 역사적 캐터키즘의 새로운 시도

가) 현대적인 언어로 새롭게 해설된 캐터키즘

역사적인 캐터키즘은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해설서 형식으로 엮어 낸 것은 지난 50년대부터 독일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8년에 바르트(K. Barth)는 하이델베르그 캐터키즘을 본 대학 신학부 강의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형식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독일 개혁 교회에서 하이델베르그 캐터키즘을 가르치는 목사와 평신도들을 도우기 위하여 그라프만(H. Graffmann)은 ‘하이델베르그 캐터키즘의

98) Ibid., 355.

배움'이라는 세 권의 해설서를 만들었다.⁹⁹⁾ 이 책들은 그 당시 독일 개혁 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캐터키즘을 가르치는 일에 도움을 준 새로운 책들이었다.

그 동안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터민스트 신앙 사상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서는 여러 차례 해설서로 그리고 새로이 엮어서 성경 공과의 형태로 소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지난 1976년에 임택진 목사에 의하여 출판된 '소요리문답서 해설'이라는 책이 있다.¹⁰⁰⁾ 이 두 권의 책은 각각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직접 썼다는 면에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1980-82년 사이에 출판된 장로교 합동측 구역 공과에 소요리 문답서는 3년 간에 걸쳐 성인 신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물론 구역 모임을 위한 공과에 취급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육적인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는 여러 번 해설서로 출판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어권의 학자들이 출판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2권으로 나온 윌리엄슨의 '요리문답서'(The shorter Catechism)이다.

역시 이 책은 1970년대 말에 한 권으로 묶어 한국 교회에 번역 출판되었다.¹⁰¹⁾ 그에 뒤이어 제임스 그린(James Benjamin Green)에 의하여 해설된 '웨스터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이라는 책이 한국 교회에 번역 출판되었다. 이 책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

99) Heinrich Graffmann, Uterricht im Heidelberger Katechismus, Neukirchen 1951, Bd. 1-3. 재인용: 정일웅,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355.

100) 임택진, 「목회자가 쓴 요리 문답」,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1976 재인용: Ibid., 356.

101) 최덕성 역, 「소요리 문답 강해」, 개혁주의 신행 협회, 1978. 재인용: Ibid., 357.

리문답서, 소요리문답서를 교리 적인 주제를 따라 비교하였고, 그 내용을 해설한 것이다.¹⁰²⁾ 이러한 형태의 해설서는 지금도 역시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적용한 캐터키즘

역사적인 캐터키즘으로서 역시 단순한 해설 형태이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청소년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새롭게 현대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는 먼저 독일의 개혁교회가 출판한 『하이델베르그 캐터키즘』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독일 개혁교회가 역사적 캐터키즘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현대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고 역사적인 것에서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을 발췌하였고, 그것들을 청소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현대적인 언어로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 책은 현재 독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전통적 캐터키즘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된 특별한 형태라고 하겠다. 정일웅 교수는 이 책을 지난 1995년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한국 교회에 소개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의 새로운 시도로서 1984년에 한국 교회에 소개되었다.¹⁰³⁾ 이것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엮은 것인데 역시 역사적인 캐터키즘을 새롭게 적용시키려 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근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를 ‘소요리야 년 누구니’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 소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일학교의 유년부 어린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¹⁰⁴⁾ 이

102) J.B. Green, A harmony of the Westminster Presbyterin Standards with Explanatory Notes, 김남식역, 「웨스트 민스터 표준문서 대조 해설」, 성광 문화사, 1981. 재인용: Ibid.

103) 김남식/정정숙, 중등부 요리 문답, 1984. 재인용: Ibid., 358.

책은 시각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학습방법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교리 체계를 가르치려 한 것은 대단한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책은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한 것이 무리 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캐터키즘을 현대 교회에 사용되게 한 것은 캐터키즘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증거인 것이다.

3) 새로운 캐터키즘의 개발

서구 교회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새로운 캐터키즘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신앙 교육의 책임을 위해서 중요한 방법론의 전환에 대한 요구라고 하겠다. 앞에서 역사적 캐터키즘의 적용 한계성에서 논한 것처럼 지금 역사적 캐터키즘의 한계성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무엇보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를 말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이 적절한 것으로 이용되지 못할 때 그 뜻의 전달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사적 캐터키즘의 현대 목회적 적용에는 세 가지 한계성, 즉 새로운 언어의 표현에 대한 요구, 성서신학의 깊은 연구에 의한 성경계시, 이해의 새로운 차원의 적용, 그리고 학습 방법론의 새로운 적용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역사적인 캐터키즘은 실로 교회 내에서의 적용에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캐

104) 이영희, 「소요리야 넌 누구니」, 교사용 4권, 규장각, 1994. 재인용: Ibid.

터키즘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며, 새로운 형태의 캐터키즘의 개발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는데, 첫째는 선교단체들에서 나타난 캐터키즘의 형태이며, 둘째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새로운 모습의 캐터키즘이다.¹⁰⁵⁾

가) 선교 단체들에서 개발된 형태

현대적으로 새롭게 시도된 형태의 캐터키즘으로는 각종 선교 단체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던 성경 공부 교재들이라 하겠다. 이 책들은 먼저 지난 60년대 미국 선교 단체들에 의하여 나타났고, 그리고 70년대 초, 이 선교 단체의 한국 지부가 생겨지면서 한국 교회에 전하여졌다. 예를 들면 대학생선교회(C.C.C운동)과 네비게이터(Navigator) 선교 단체들에 의한 것이다. 이들은 복음 전도를 위한 소책자와 함께 모두 열 단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내었다. 이 책들은 모두 개인의 강력한 회심의 경험과 복음 전도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들이었다. 정일웅 교수는 이 책들을 새로운 캐터키즘으로 보는 이유가 이 책들에 담겨진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역사적 캐터키즘에 담겨진 교리적인 주제들이 취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내용들은 지극히 기독교론과 성령론 중심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한 내용들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 책들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교회생활을 중심한 신앙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개인의 복음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 그 때문에 역사적인 가르침에 중점을

105) Ibid., 359.

두었던 교회를 중심의 가르침으로 초 신자가 알아야 할 기독교 구원의 진리와 교회 생활을 중심의 가르침(성례, 즉 세례와 성찬)과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십계명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책들은 침묵하고 있으며, 또한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역사적인 캐터키즘과는 거리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¹⁰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일웅 교수는 이 책들은 교회의 신앙 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앞서 밝힌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이웃에게 전하자는 전도 방법으로 만들어진 교육서라 하겠지만 이 교재들에서 다루어진 부분적인 교리적 내용과 학습 방법으로서 질문과 대답의 양식을 응용한 것은 역사적인 캐터키즘의 성격을 전제하여 새롭게 표현된 일종의 캐터키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새로운 캐터키즘

역사적 캐터키즘이 교회를 통하여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독일의 루터파교회가 ‘독일 기독교 성인을 위한 캐터키즘’(Evan-gelischer Erwachsenenkatechismus)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한 1975년의 일이다. 이 책은 여전히 카테키스무스(Katechismus)라는 전통적인 이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캐터키즘의 내용과 그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역시 하나의 새로운 부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Kursbuch des Glaubens”라는 이름이었다. 이것은 번역하면 ‘일정한 코스를 따라 신앙을 배우는 책’이라는 뜻이다. 이 책의 특징은 현대적인 새로운 학습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본적

106) Ibid.

으로는 독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룹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신앙 교육서이기 때문에 신앙 상담적 차원에서 지혜와 대답을 얻도록 현대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물음들이 주제로 설정되었고, 그 질문에 충분한 이해적인 대답으로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큰 자극을 받고 있는 것은 역시 네덜란드에 있는 카톨릭교회가 1969년에 이미 새로운 형태의 캐터키즘으로 출판한 “성인을 위한 신앙과 진과”(Verkündigung des Glaubens für Erwachsene)라는 책이다. 이 책도 역사적인 캐터키즘의 형태를 극복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의 캐터키즘이었던 것이다. 독일 루터교회가 만들어 낸 새로운 캐터키즘은 그 후에 다양한 모습의 자매 관계의 캐터키즘을 탄생시켰는데, 교회가 기존 신자들의 신앙의 배움을 위하여 “교회의 카테키스무스”(Evangelischer Gemeindekatechismus)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그리고 일반 여행자들이 여행 중에 독서 형태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것”(Was ich glauben)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카테키스무스’(Katechismus für Kinder)도 만들어 내었다. 이 외에도 신앙의 물음에 대한 주제를 서신 교환 형식으로 취급하여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것은 실제로 상담적 차원에서 신앙의 물음을 대답하는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은 실로 다목적 기능을 전제하여 만들어진 가장 현대적인 캐터키즘이라 할 것이다. 물론 독일과 구라파의 교회들은 이러한 캐터키즘을 통한 신앙 교육의 방법론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이제는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캐터키즘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는 초 신자들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목회자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앞서 말한 선교 단체들을 통하여 제시된 성경 공부 교재들을 응용하여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내에서 새로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모임이 있다. 이러한 내용 또한 역사적 캐터키즘에서 다루었던 구원의 교리 적인 내용과 교회생활과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취급되는 새로운 형태의 캐터키즘의 시도인 것이다.¹⁰⁷⁾

3. 칼빈의 교리 교육과 역사적인 캐터키즘의 현대 교회에 있어서의 목회 실천적인 적용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 시대와 칼빈의 교리 교육 이후에 사용되었던 캐터키즘은 목회 실천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을 다해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책으로서의 기능으로, 예전적 기능과 설교로서의 기능, 기도서로서의 기능과 목회 상담서로서의 기능, 그리고 신앙 고백서로서의 기능 등으로 소개되어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여섯 가지 관점에서 사용되었던 역사적 캐터키즘이 오늘 현대 교회에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목회 실천적인 적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신앙 교육적인 기능

107) Ibid., 361.

캐터키즘은 원래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초신자들에게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던 행위에서 출발하였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캐터키즘을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교육적 행위로 정의하였다. 칼빈 역시 교리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의 지침, 즉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었다.¹⁰⁸⁾

캐터키즘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했다.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성경 계시의 요약으로서 기존 교리 적 체계를 가르침의 내용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철학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모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적 캐터키즘의 가장 중요한 실천은 칼빈이 제네바 학교에서 가리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서 초 신자 및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으로 카테키즘 교육이 적용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 다음은 필자가 실제로 영동제일 교회에서 중. 고등부 사역 가운데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웨스터 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재¹⁰⁹⁾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중 몇 개를 뽑아 교안을 정리 한 것이다.

108) Jeremy Jackson, 김영재 역,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8), 222.

109) 청소년용. 신앙학습 교재-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서, (서울: 영문, 2000).

6개월 동안 1장 성경에 관하여서부터 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까지 가리켰으며 매주 토요일 5시에 교사들이 모여서 다음주 공과 준비를 하였다. 실제적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와 분반 공부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가리켰으며 설교는 교리 적인 면과 은혜 적인 면을 강조하였고, 교사들은 분반 공부 가운데 이러한 교리 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학교와 가정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제1장 성경에 관하여¹¹⁰⁾... (2002년 1월 12일)

◆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1)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요.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 20: 31) 영생 →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17:3)

2)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 골 1: 28-29. 에 4: 12 와 동일하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

I.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10) Ibid., 7.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신약(27권) 과 구약(39권)의 모든 책이 다 포함되어 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1500년에 걸쳐 약 40명의 저자들이 저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신성함과 교리적인 체계와 장엄한 문체와 모든 내용이 일관성과 완전함과 통일성을 이룬다.

II.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과 신앙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새로 첨가할 필요가 없다.

III.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1.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딤후3:16. 계22: 18)
2.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복종해야 한다.-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 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뵤후 1:20.21 요일5:9)
3.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도 격식이 있어야 하며 이는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전14:26)
4.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온전한 뜻을 위해 더 분명히 밝힌 성경 구절을 찾아야 한다.(행15:15)

IV. 성경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1.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틀림없는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요16:13, 고전 2:10-12)

2. 인간의 구원과 신앙 생활에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만드시고 기록하신 분이 성령 이시기에..)
3. 모든 종교적 논쟁과 회의의 결론이나 판단에 있어서 최종 심판자는 성령이시다.(요일 2: 27)

제10장 효과 있는 부르심(Calling, vocation) 에 관하여¹¹¹⁾...(2002년 4월14일)

I. 들어가기 전에

제10장부터는 구속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원의 순서(서정)가 14장 성화에까지 이어 집니다. 이 서정의 순서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반적 부르심(구원을 복음에 의하여 값없이 제공받음)- 중생(택함 받은 자들을 심령으로 새로운 존재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 - 회심(복음에 대해 회개와 신앙으로 응답하는 그 새로운 심령의 활동) - 칭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회개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 - 양자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되는 권리와 특권을 인정) - 성화 (택함 받은 자들이 신앙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일치해 가는 성령의 사역) - 영화 (이로 말미암아 몸이 부활할 때, 마침내 신자가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완전케 된다) 의 순서를 보여 줍니다. 먼저 10장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부르심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II.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

111) Ibid., 56.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소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중대한 것이다. 죄인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출발은 소명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집단인 교회도 에클레시아 인데 액(out of)와 클레시아(called)의 합성어로 죄악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집단임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성도란 말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진 말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롬1:6,7 8:28,30 고전 1:9,7:15, 갈 1:15, 딤후 1:9 히 3:1)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도 불러 세우셨다(마4:19,21, 막 1:17,19)

1. 소명의 주권자 : 누가 부르시는가? - 이 소명을 계획하시며 집행하시고 또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소명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집행하시며 역사하신다.

2. 소명의 구별 - calling은 인간을 구원에 입참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며 그 형태를 보아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1) 외적 소명 (external vocation) - 마 22:14 에 “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과 눅 14: 24 에 “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행 13:46 등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은 외적인 소명에서 끝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2) 내적 소명 (internal vocation) - 내적 소명은 택한 자들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로운 부르심인데 내적 부르심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있다

① 후회 없는 부르심 -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롬 11: 29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라고 했고 요 6:37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② 유효한 부르심 - 소명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인 클레시스 안에는 법정에서 부름. 법정에서의 호출 즉 가장권위 있고 힘이 있는 부르심인 것이다.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딤후 1:8-9,엡1:18-20, 살후 2:13, 빌 2:13)이다

③ 거룩하고 영화로운 부르심 - 이것은 소명의 목적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딤후1: 9절에는 “ 하나님을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하셨고 살전 4:7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라고 하셨고 벧전 1:1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처럼 부르심의 궁극적 목적은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특성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적인 소명을 발견하여야 한다.

Ⅲ.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1.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Calling)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방편으로, 오직 전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고전 1:21) 우리가 분명한 부르심을 깨달으면 전도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기쁨과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전도하는 복

음 전과 자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2.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calling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택함 받지 못하였는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속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다면 나는 부르심의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 부르심 가운데 나는 순종하고 있는 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제17장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성도의 견인)¹¹²⁾ (2002년 6월2일)

1. 우리가 먼저 배울 것

신앙 고백서 제17장이 가르치는 것은 참 신자들은 ① 은혜에서 타락 할 수가 없다는 점 과② 그들이 인내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과 ③ 이 확실성은 그들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선택의 작정,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인내하게 하시는 내주 하시는 성령, 그리고 영원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1.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회개와 신앙에 의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회심하였다고 하면 또다시 영원한 진노와 파멸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 결코 있을 수 없다 (요3:36, 요5:24)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112) Ibid., 88.

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한다(빌 1:6, 렘 32:40)

2. 참된 신자들은 바울의 말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벧전 1:5)

★ 구원관에 있어서의 개혁주의 와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 주의의 견해의 차이

카톨릭, 알미니안 주의: 하나님은 주유소의 주인 (무한한 능력의 창고) 그러나 죄인이 주유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 모든 구원의 역사와 키가 사람에게 의해 좌우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구원 → 불완전하다.

개혁 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죄인 한 사람을 위한 성부의 선택. 성자의 중보와 성령의 역사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심. → 완전한 구원

3 그러나 실재로는 이 같은 가르침에 모순되어 보이는 일들이 흔히 체험되어진다. (신앙의 실족. 범죄함. 교회에 적대등) - 참된 신자들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코 은혜에 타락할 수는 없지만 잠시 타락 할 수가 있고 또 타락한다. 이것은 우리들 눈에는 “은혜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며 노아. 모세. 다윗. 베드로 등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경우의 따라 나름대로 세상의 유혹, 사탄의 시험,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성,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이를 보여 줌은 우리가 죄 짓도록 격려함이 아니요 경고하여 그 같은 실수를 없게 하려 함이다.

4. 견인 교리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이 확실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 거룩함 가운

데서의 견인이 확실케 된다는 것이다. 그 교리는 구원 받는데 에 “우리편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 하시어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하며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 이것은 끊임없는 투쟁이요, 젓 먹던 힘까지 다 쏟아야 하는 몸부림인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으리라“ (마24:13)

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징계는 있을지 언정 결코 정죄함은 없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참 신자라면 거룩함과 친 백성이라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에 더욱더 그 삶의 모습 속에 참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다.

6. 견인 교리를 주신 목적: 우리 안에 착함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를 지킨다는 확신 속에서(빌1:6)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 갈 수 있는 것이다.

II.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1. 성도의 견인 교리의 참다운 의미를 가르칩니다. (신앙의 나태함. 방종이 아님)
2.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끝날 까지 승리하며 나아감을 가르칩니다.
3. 믿음과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며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고하며 도와야 함을 가르칩니다.
4. 구원의 역사와 삶의 열매는 오직 성령과의 동행함으로 이루어짐을 가르칩니다.

◆ 실제로 캐터키즘 교육은 특별히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었기에 가르치는 교사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신앙 고백서의 언어의 표현이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의 언어를 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번역되는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 또는 구문의 표현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과 언어적 표현을 오늘의 언어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며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교사들은 한 주간 미리 다음 주제를 함께 예습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적절한 예화와 성경구절을 찾으며 노력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캐터키즘 교육은 배우는 이는 물론이거니와 가르치는 이 역시 새로운 신앙관을 정립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 다음은 한 치호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위한 알기 쉬운 소요리 성경 공부에 대한 교재이다. 내용은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습 방법으로는 연역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요리 문답의 진술을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귀납법을 응용하였다. 귀납법적인 접근에서만 학습자들에게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리 문답이 체계적으로 교리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앙이 화석화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각각의 질문과 대답에서 주제를 찾아내어 이것을 ‘제목’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문답 전 107문을 1년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편

성하였다.¹¹³⁾ 여기서는 제5과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 하고자 한다.

제5과 오직 한 분 하나님¹¹⁴⁾

제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공유적 속성과 비 공유적 속성으로 살핀 요리문답은 우리의 신앙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말씀연구

1.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1) 창세기의 첫 기록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1)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

113) 한치호, 「중.고등부를 위한 알기 쉬운 소요리 성경 공부- 진리찾기 소요리1」 (서울: 규장, 1996).

114) Ibid., 28.

로 나타내십니까? (사44:6)

“나는 □□이요 나는 □□□이라 나 외에 다른 □이 없느니라”

2) 이사야 46:9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①

②

3)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고전8:4)

2. 하나님은 참되시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1) 다윗이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써봅시다.

시 117:2 :

2)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노래하였습니까? 민수기 23:19을 찾아서 써봅시다.

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

②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

3)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써봅시다.

시 145:17 :

4)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되심에 관련하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① 말에 대하여:

②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을 향한 섭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할 수가 없으십니다.

3.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1) 아브라함은 그릴왕 아비멜렉과 서로를 해롭게 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념하여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1) 기념식수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다?

창21:33 :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지낼 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어떠 하시다고 말씀했습니까

신 5:26 :

3)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상 17:23 :

4) 히스기야왕의 신복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어라고 하였습니까?

왕하 19:4 :

■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유일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유일 신론자 들입니다.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느냐는 물음에 오직 한 분뿐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 예전적인 기능(세례와 성찬과의 관계)

캐터키즘은 역시 역사적으로 예전 적인 기능을 전제하여 사용되었다. 여기 예전 적인 기능이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캐터키즘이 기본적으로 예배에서 성경 교독을 대신하여 예배 인도자와 회중 사이에 교독의 형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루터와 칼빈의 캐터키즘과 하이델베르그 캐터키즘은 상당한 기간 동안 예배에서 읽혀진 독서용 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캐터키즘의 예전적인 기능은 이 책을 배우는 목표가 예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초 신자들과 청소년들이 이 책을 배우고 세례의 문답을 거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청소년들은 입교 예식을 행하고 세례에서 교체하게 한 것이다. 캐터키즘의 이러한 예전적인 기능은 캐터키즘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회 상에서 적용되었던 실천적인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캐터키즘의 교육은 바로 이런 기능이 현대 목회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중요한 기능이다. 현대 한국 교회의 목회에서도 초 신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배움에 대한 이러한 예전 적인 기능을 잘 적용한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¹¹⁵⁾

3) 교리 문답 설교로서의 기능

캐터키즘의 설교로서의 기능은 칼빈의 캐터키즘과 하이델베르그

115) 정일웅,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343.

캐터키즘이 보여 준 독특한 기능이라고 하겠다. 칼빈은 원래 캐터키즘을 몇 문항씩 엮어 과목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따라 목사는 주일 오후 예배에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하이델베르크 캐터키즘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구라파의 개혁 교회들은 이 책을 매 주일 저녁 예배에서 교리 설교를 위하여 오늘날에도 목회 상에 그대로 실천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네덜란드계 독일 지역의 개혁 교회는 지금도 주일 저녁 예배에서 목사는 설교로 온 교인들에게 캐터키즘을 가르치고 교인의 참석도 약 95%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현대적인 캐터키즘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러한 기능이 현대 목회에 있어서도 그대로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캐터키즘 교육의 설교로서의 실천적 기능을 연구하여 적용해 보면 무엇보다도 교리 문답 설교가 오늘의 강단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리 설교는 무엇인가? ‘교리 설교’에 대해서 기독교대백과 사전은 이렇게 말한다. “실제적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해석해주는 강단 설교”¹¹⁶⁾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 설교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 부재 등과 같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설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리 문답 설교는 기독교회가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한 교리를 모아 놓은 교리서,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같은 ‘교리 문답서’의 순서와 내용을 중심으로, 그 문답서에서 말하는 성경말씀을 설교로 가

116) 기독교 대백과사전 중보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5), 125.

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리 문답 설교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교리(문답)설교는 신학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이므로, 연역 법적 해석 원리라고 할 수 있다.¹¹⁷⁾ 교리 (문답) 설교는 설교자의 머리에 이미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가 설정되어 있기에, 그는 어떤 성경 구절들을 강해하면서 그 구절과 신학적으로 연관되는 구절들을 성경 전체에서 인용하여 설교하게 된다.

찰스 스피전이가 성경 본문으로 짧은 구절을 선택한 후 그 본문에서 대지를 찾아낸 다음, 성경 전체를 섭렵하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그 대지의 내용을 채우거나, 로이드 존스가 성경 본문에서 교리를 찾아내고, 그 교리를 성경 전체의 연관 구절을 통하여 입증해 나가는 설교 방식을 취한 것은 교리문답 설교와 유사하다. Herbert Lockyer의 교리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성서에 나오는 모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라고 한다. 다음으로 교리의 전개 과정을 연구해 본다. 세 번째는 교리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고 네 번째는 성서적 교리는 성서의 언어로 서술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교리와 실천을 연관지을 것을 말하고 있다.¹¹⁸⁾

4) 기도로서의 기능

이것은 캐터키즘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책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특별히 루터의 캐터키즘이 역사 속에

117) 김서택, 「건축술로서의 강해 설교」, (서울: 홍성사, 1998), 43-45.

118) Herbert Lockyer, 성경연구 올시리즈 “교리” (서울: 로고스, 1983), 18-21.

서 그리고 지금도 개인이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며 명상하는 책으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캐터키즘의 내용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 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캐터키즘에 적용된 학습 방법으로 질문과 대답의 도식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화의 기본 양식이다. 이러한 캐터키즘의 형태가 역시 개인적인 기도에서 그대로 사용된 것이다. 또한 루터는 그의 캐터키즘에 직접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식사 전과 후에 기도하도록 기도문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루터의 캐터키즘은 평신도들의 직접적인 기도서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날도 이러한 기도의 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캐터키즘이 한국 교회에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별히 초신자와 기존 신자들 그리고 성장 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은 이 캐터키즘이 보여 준 중요한 목회상의 교육적인 의미라 하겠다.¹¹⁹⁾

<기도에 관하여> (하이델 베르그 신앙 교육 문답 中 에서)

문 116.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답. 기도는 감사를 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를 끊임없이 구하도록 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은혜와 성령을 주십니다.

시 50:14~15; 눅 11:9~10, 13; 살전 5:17

말씀, 성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구이며, 은혜에 대한

119) 정일웅,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344.

응답이요 하나님과의 사귀을 위한 대화이며 통로이다. 그런데 기도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행하는 아뢰기와 응답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말씀과 성례와는 개념상 구별된다.

문117.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답. 첫째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참 살아 계시는 한 하나님께 당신께서 우리더러 구하도록 명하신 모든 것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 하는 기도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영화로 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아뢰는 기도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비록 우리는 빌 자격이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145:18; 34:17~19; 약1:6~7; 요16:23; 요일 5:14, 그 밖의 기도하는 사례들: 창 18:22~23; 32:9~12; 출8장; 32:11~14; 시51편(다윗의 기도); 왕하 19:15~19(히스기야왕의 기도); 대하 33:12~13(므낫세왕의 기도); 단6:10; 9:1~19(다니엘의 기도); 눅18:13(세리의 기도); 마 15:21~28(가나안 여자의 기도)

문118.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무엇을 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습니까?

답.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 요점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위하여 필요

로 하는 모든 것을 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문119.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위의 내용은 하이델 베르크 신앙교육 문답 116번 질문부터 119번 질문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¹²⁰⁾ 여기에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무엇을 구하라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신앙문답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모르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여도 문제에 적용되는 공식을 모른다면 그 문제를 결코 풀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공식 없이 문제를 푸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기도이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 할 때가 너무 많다. 캐터키즘 교육은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120) 하이델 베르크 신앙 교육 문답, 김영재 역, (합동신학 대학원 출판부: 2000), 85-87.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신앙의 근본 공식을 알려 준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초 신자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리 교육을 통한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올바른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5) 목회 상담으로서의 기능

캐터키즘이 목회 상담과의 관련을 가지는 것은 캐터키즘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 모두 그 시대적인 신앙의 물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리 교육이란 원래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신앙의 윤리적인 물음들에 기본적인 대답들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캐터키즘은 바로 그 당시 기독교 신앙에 기본적인 물음을 가진 자들에게 목회 상담 적인 의미로 다가갔고, 그러한 물음에 대답을 제시하는 상담 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목회 상담 기능은 오늘의 현대적인 캐터키즘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다.

“간추린 목회 상담학”을 쓴 이종기 목사님은 인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문제를 크게 5가지로 나누었는데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 생활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사회 생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¹²¹⁾ 아울러 그에 따른 목회 상담학적 위로와 방법

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며 상담 자는 여기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세대별로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와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자세이다. 세대와 계층에 따라서 문제의 핵심이 다르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a. 삶에의 문제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성찰(省察)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의미하며 인간 실존(人間實存)의 문제이며, 삶의 방법과 자세를 살피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인간은 물질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왜 사느냐?> 하는 존재론적 고뇌가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이 없이는 자신의 삶을 바로 지탱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삶에의 문제는 종교와 윤리 문제로 발전하며 철학의 영역이 되기도 한다. 이 문제들은 자신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을 준다. 목회 상담학에서 이 분야는 신(神)의 문제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속에서 참다운 진리를 찾아야만 한다. 목회자가 실제로 당면하는 문제 중 많은 분야가 바로 삶에의 문제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왜 살아야 하느냐?>하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번민하고 자책하며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여기에 상담자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바른 응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즉

121) 이종기, 「간추린 목회 상담학」 (서울: 세종문화사, 1993), 42.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이 삶이다.>는 확신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권면적인 방법이다. 로저스 학파가 말하는 비 지시적 상담은 이상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피상담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으며, 신앙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목회 상담이 일반 상담과 다른 점이며, 우리가 취하여야 할 상담의 길이기도 하다.¹²²⁾

b. 인간 관계 문제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인간 관계 문제가 등장한다. 출생하면서 생기는 어머니와의 문제에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문제가 등장되고 있다.

상담 자는 이 인간 관계문제에 있어서 바른 원리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교훈 하는 삶의 길 외에는 아무런 왕도(王道)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며, 삶의 길이다. 그러므로 인간 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일들은 신앙의 영역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 받았으나 타락하였기 때문에 범죄 하였고, 그리스도인도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 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준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인간 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준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인간 관계는 수평적 관계인데 이를 해결하기

122) Ibid. 43.

앞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 자들은 인간 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 받는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관례나 유형 속에서 해결하기를 바라지 말고 신앙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권면 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이성간의 애정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상담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신의 감상이나 윤리관을 표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적 해답을 얻기 위해 상담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c. 가정 생활 문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이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셨다. 가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가족 관계는 <피>로 연결된 관계이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부부 사이의 문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제, 형제 사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가정의 문제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일이다. 가정이 바로 되고 화목하여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家和萬事成)는 옛말과 같이 가정이야말로 우리 삶의 뿌리이다. 이 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자세는 극히 중요하다. 바른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성경이다. 최근에 와서 가정 생활 문제에서 이혼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변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상담 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한데 자
칫하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 심각한 반응이 따르기 때문이다.

d. 경제 생활 문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
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직업 문제, 실직 문제,
노사(勞使) 문제, 경제 정의(經濟正義)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뒤따
르는데 목회자는 여기에 대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
렵다.

그러나 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삶의 길
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마 6:33-34)이라는 성경
적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자칫하면 상담자가 관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되기 쉬우나
이것이 삶의 원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e. 사회 생활 문제

사회 제도의 모순이나 부조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폐들을 실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이다. 정치, 사회, 문화, 국제 등
각 영역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규정적인 단정
을 내리기란 어렵다.

여기에 사회 정의(社會正義) 문제가 대두되면 현실 비판도 등장한
다. 목회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매
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상담의 문제 속에서 상담 자는 항상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성
경이다. 성경을 토대로 한 기준 설정이 바른 목회 상담의 길이며,
인간 이해의 길이기도 하다.¹²³⁾

◆ 이와 같이 인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캐터키즘 교육을 통한 목회 상담 적 적용을 생각해본다면 하이델 베르그 신앙 고백서 제1문과 2문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a) 대화를 통한 상담

제1문 :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제2문 :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하며, 두 번째는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b) 판토마임과 연극을 통한 상담.

상담을 위한 연극 팀을 구성하여 실제 상담에서 활용한다. 판토마임으로 극도의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다. 오직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절제된 온몸으로 연극 팀 중의 한 사람이 연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연극 팀의 한사람의 연극을 보고 질문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

질문1 : 이런 극단적인 절망에 빠져 본적이 있는가?

질문2 : 고독과 허무에 빠져 본적이 있거나 주변에서 그런 친구를 본 적 있는가?

질문3 :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질문4 : 생사간의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가?

123) Ibid., 47.

c) 성경을 통한 상담

고난과 역경과 어두움 속에 살았던 사람을 구원해준 성경의 예를 찾아보게 한다. 수가성 여인, 베테스다 못가의 38년된 환자, 문둥병 환자, 귀신 들린자, 혈루병 환자등이 있다. 그 중의 한 본문 요한 복음 4장을 택해 성경을 읽게 하고 대화를 하게 한다.

1) 역할극을 하게 한다.

역할극을 마친 후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어떠한 마음이였을까를 이야기한다.

- 이 여인의 상황은 오늘 당신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현대인의 고독이 암시되어 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구 불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무엇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도움이 제시되었는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말씀을 통해 극복되었다.

2) 예수님을 만난 후 여인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위로는 예수님의 치유이다.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도움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이다.
-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새 생명을 얻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고독한 한 인간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증거 하는 자로 만드셨다.

3) 이제 그 여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이 가능한가?

-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롬14:9-14).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그

리스도의 것입니다.

◆ 결론과 헌신

: 상담자가 자신의 학습지를 완성하고 기도를 한 후 마친다.

◆ 과제 : 롬 14:8절을 암송하게 한다.

6) 신앙 고백서로서의 기능

종교 개혁시대의 캐터키즘이 신앙 고백서로서의 의미를 얻게 된 것은 교회사적으로는 17세기에 이르러 신앙 고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대두된 것이다. 1618-19년 네덜란드의 도르트레히트 총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캐터키즘은 구라파 개혁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공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역시 루터파교회에서 루터의 캐터키즘과 1530년에 나온 아우스부르크 신조(CA)는 아우스부르크 국회를 거쳐 17세기에 이르러 루터파 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되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하여 신앙 고백서는 먼저 작성되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캐터키즘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총회를 통하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공인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경향은 오늘날까지 캐터키즘은 언제나 신앙 고백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역시 캐터키즘의 신앙 고백서로서의 기능은 신앙 고백이란 말이 뜻하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한 목소리로서의 찬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는 신앙의 통일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신앙 교육적으로는 고백에 이르도록 이끌어야 하는 교회의 신앙 교육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이 하나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배워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고백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캐터키즘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며, 목회 실천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 것이다.

7) 초 신자들을 위한 신앙 교육적 기능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캐터키즘을 현대 목회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캐터키즘을 만들어 적용하려고 할 때에 이 캐터키즘들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신앙 교육 과정의 원리와 그 기능들은 다시금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육서는 오랫동안 구라파와 전 세계 개혁 교회에 신앙 교육서로서의 그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그 어떤 신앙의 책보다도 교육적인 특성이 우수하며,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것이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캐터키즘도 한국장로교회는 지금도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신앙 서적이라고 본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캐터키즘의 신앙 교육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 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 때문에 특별히 전도되어 온 초 신자들과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은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한국 교회는 이러한 초 신자들의 신앙 교육에서부터 이 캐터키즘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며, 신앙의 체계를 세워 주면 그것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한국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

다.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놓아주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은 기존 신자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언제나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 내용인 캐터키즘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일깨우고 상기시키며 종합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 성경의 본문 말씀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각론에서 진리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의 초석을 놓는 캐터키즘인 신앙 교육의 방법을 목회의 실제에 최대한 활용할 때 한국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이다.¹²⁴⁾

124) 정일웅,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362-363.

I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의 신학적, 교육적 사상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교육적 사상들이 당시에 어떻게 실천되었으며, 칼빈의 교리 교육과 교육적 방법들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적 카테키즘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칼빈은 종교 개혁의 방편으로 교육을 사용하였다. 그가 생명력을 상실한 허울뿐이던 제네바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여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주된 목회 적 수단으로 동원하였던 것이 바로 교육 목회이다.¹²⁵⁾

이러한 칼빈의 교육 목회의 중심은 바로 교리 교육이다. 교리 교육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인식을 일깨워 주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지식 전수 교육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삶의 가르침이요, 나태해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에 경고와 훈련을 통하여 그 삶이 온전한 것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신앙 성숙의 교육’이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의 관계에서 그 설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교리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칼빈은 신앙의 가르침(Katechismus)을 위한 책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책은 하나님의 교리(구원의 가르침)를 설교하는 책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리 교육의 실재를 위해 가정과 학교 교육의 장과도 연결시켰다. 또한 성장세대의 교육은 역시 가정의 부모와 교사와의 연관 속에서 교육되고 보호되

125)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6.

도록 하였다.

또한 칼빈의 교리 교육에서 주목할 것은 성장세대와 기성 세대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칼빈의 교리 교육에서는 통합된 교과 과정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칼빈의 katechismus는 주일 오후에 온 교인들에게 설교되는 교리 교육의 통합된 커리큘럼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칼빈에게서 이해되는 교리교육이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에서 삶의 지침, 즉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지를 올바르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신앙의 가르침의 교리였던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칼빈의 교리 교육을 기초로 하여 몇 가지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개혁 교회의 전통의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인 ‘교육의 중요성’을 살려서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성장 지향적. 외향적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교육하는 일에는 너무나 등한히 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과 이론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교육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의 신앙이 전수되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 교회 안에서의 교리 교육의 회복이다. 칼빈은 제네바 목회에서 ‘교리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교리 교육’은 설교를 포함한 것으로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와 초 신자들에게 기초적인 교리, 즉 ‘복음’을 통한 신앙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오

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를 보여준다. 교리 교육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신앙의 정체성의 확립과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다시금 한국 개혁 교회는 이 ‘복음’에로의 안내 적 역할을 하는 신앙적 교리 교육을 재점검하고 다시금 신앙적으로 충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유치 부서부터 중, 고등부, 청년 부에까지는 주일 학교 교육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하거나 그이후의 연령층이 되면 교회 안에서의 교육적 기회나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못하고 일종의 전도회, 구역 등에 소속되어 모임을 갖거나 예배를 드리게 된다. 또한 중, 장년의 남자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교육적 공동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일웅 교수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주일 학교 교육(성장세대)과 성인 목회(기성 세대)사이의 극심한 이원 적 갈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교육 구조의 갱신을 통한 총체적인 교육의 공동체 성을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주일 학교 교육의 중심 속에 견신례(堅信禮)반을 설치해야 함을 말한다(중등부 과정이나 고등부과정). 그리하여 신앙의 기본 교리를 중심으로한 신앙 교육서(Katechismus)를 새로운 교과 내용으로 만들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성인들의 오후집회 또는 저녁 시간에는 신앙 교육서를 새로운 교과 내용으로 만들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한국교회는 더욱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²⁶⁾ 이와 같이 교회 교육은 ‘교육하는 교회’의 정체성 속에서 신앙을 문화화 하는 공동체적 구조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인식과, 교회 전체의 삶의 형태(예배, 가르침, 친교, 전도, 봉사)가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칼빈이 그의 교리 교육을 실시했던 것처럼, 평생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서 계획,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이 어린이, 청소년, 초 신자에게만 국한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기존 신자와 목회자 자신도 포함한)가 총체적인 교육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넷째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칼빈의 교육은 지성적 신앙을 요구하는 체계이다. 칼빈은 참 신앙은 지적인 신앙이라고 말한다. 칼빈이 말한 지적인 신앙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었다. 칼빈의 제네바 목회에서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경건의 훈련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는 교리 교육의 과정은 교리가 단순히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땅에 천 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지만 사회의 공의와 부정과 부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지식과 삶이 분화된 그리스도인을 한국 개혁신교회가 양성한 것은 바로 교회 교육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 교육의 의미가 지식과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통합적인 칼빈의 교리 교육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126) 정일웅, 「교육 목회학」, 312.

날 많은 마스크에서 한국의 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전인적 교육은 무너지고 교육이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기준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예전처럼 가정에서의 질서와 윤리와 바른 교육이 무너지고 급격한 이혼의 증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교육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교회 역시 물질의 풍요와 세속화로 말미암아 초기 신앙의 선배들의 뜨거운 영성이 무너지고 교회 교육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에 실패하고 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연합적인 교육의 회복이 필요하다. 칼빈은 교회 교육을 교회 안에서만 행하지 않았다. 칼빈은 교회에서 행해진 교리 교육이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했고,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해 학습 혹은 교회 교육을 권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교리 교육이 실시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행해진 교리 교육은 자연스럽게 교리 교육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행해지도록 하는 훈련 적인 효과를 낳게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먼저 믿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가 먼저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교리 교육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삶이 통합된 교회 교육, 가정,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신앙 인으로서 사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교회 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교회 교육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만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통한 사회적 선교와 복음 선교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복음 선포와 사회적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 양성해야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

연적으로 한국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칼빈의 교육 이론과 교리 교육 그리고 실천과 적용. 나아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육자. 하나님의 종 칼빈의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를 통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칼빈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낸 풍성한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앞에 더욱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겨 주었다.¹²⁷⁾ 그러므로 제네바 개혁자의 신학과 교육 사상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들은 그의 교육과 신학 그리고 교리 교육이 오늘의 우리 시대에 힘있게 파급되어 개인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개혁하는 데 강력한 불길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사려 깊게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127)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236.

참고 문헌

<단행본>

-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 김득룡. 「기독교교육원론」.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0.
- 고재수. 「교의 신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디다케, 1992.
- 김서택. 「건축술로서의 강해 설교」. 서울: 홍성사, 1998.
-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1.
-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박일민. 「개혁 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 문화사, 1998.
-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8.
- 신복윤. 「칼빈의 신학 사상」. 서울: 성광 문화사, 1993
- 양금희. 「종교 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오인택 외 4인.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 이종기. 「간추린 목회 상담학」. 서울: 세종 문화사, 1993.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78.

정웅섭.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7.

정일웅. 「교육 목회학」. 서울: 솔로몬, 1993.

_____. 「한국 교회와 실천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2.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 사상」.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최낙재. 「소요리 문답 강해 I」.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한치호. 「중. 고등부를 위한 - 진리 찾기 소요리1」. 서울: 규장, 1996.

홍치모. 「종교 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7.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 번역서 >

바빙크, 헤르만 . 김영규 역. 「개혁주의 교의학 I」.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윌레스, S. 로날드. 나용화 역.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8.

칼빈, 존.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_____. 한인수 역. 「칼빈의 요리 문답」. 서울: 경건, 1995.
- 팔마 h, 에드윈. 박일민 역. 「칼빈주의 5대교리」. 서울: 성광 문화사, 1982.
- 하이델 베르크 신앙 교육 문답. 김영재 역. 수원: 합동신학 대학원 출판부, 2000.
- Eavey, C. B. 김근수. 신청기 공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6.
- Hadge, A. A. 김종흡 역.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Heidelberg Cateshism. 신헌재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울: 할렐루야 서원, 1989.
- Howard G. Hendricks.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4.
- Jeremy Jackson. 김영재 역.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8.
- Neve, J. L. 서남동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기독교 서회, 1982.
- Richard, R. Osmer. 박봉수 역. 「교육 목회의 회복」.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9.
- Williamson, G. I. 나용화 역.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2.

< 양 서 >

Bouyer, Louis. *The Spirit and Form of Protestantism*. Westminster. Md: The Newman Press, 1956.

Shaff, Philip.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1*. Grand Rapids: Baker, 1977.

Towns, Elemer L.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 Baker, 1975.

< 논문 >

고수진. “칼뱅의 교회 교육론”. 장신대 신대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연희. “칼빈의 사상에 근거한 교육과 성화의 관계”.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1.

김영무. “ John Calvin의 개혁주의 교육관에서 본 John Dewey의 경험 교육론 비판”.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8.

박희은. “웨스트 민스터 카테키즘의 현대 교수학적 적용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8.

유성애. “ John Calvin의 교육사상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7.

이윤미. “칼뱅의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교육론”. 장신대 신대원 석사 학위 논문, 1998.

이종찬. “칼뱅의 인간이해와 기독교 교육”. 장신대 신대원 석사 학위 논문, 1987.

< 학술지 및 사전류 >

고용수. “칼빈의 교육사상”. 계명신학. 제7호, (1992년 5월호).

김득룡. “칼빈의 교회 교육 연구”. 「신학 지남」. 제205권, (1985년 6월호).

김재우. “칼빈의 성화론”. 합동신학 대학원대학교, 2000.

박동순. “칼빈과 교육”. 「칼빈과 개혁 신학」. 광주: 광신대학교 출판부, 1999.

양승헌. “교회 교육의 갱신 없이는 21세기는 없다.” 「목회와 신학」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0년 1월호.

정일웅. “칼빈의 교리교육과 교육 목회”. 「신학지남」, 제223권. (1990년 3월호).

_____. “칼빈의 교리 교육과 제네바 신앙 교육서 연구”. 「교사의 벗」 제12호. 서울: 한국 기독교교육연구회, 1998. 겨울.

Herbert Lockyer. 성경연구 올 시리즈 “교리” 서울: 로고스, 1983.

기독교 대백과사전 중보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5.